

2008. **4** Vol. 196  
www.bsculture.busan.k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에의 초대



첼리스트 송영훈



2006  
최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 미래를 아는 부산도시공사... 우리의 미래는 바로 고객 여러분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객, 인재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BMC**가 되겠습니다.



**BMC**  
부산도시공사

**주요추진사업**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화전산업단지 조성, 미음산업단지 조성, 장안산업단지 조성, 정관택지조성, 추모공원조성, 테크노파크 건립, 주거환경개선(4개지구)

**BMC**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 (614-707) |  
| Tel. 051)808-2662 | Fax. 051)810-1400 | <http://www.bmc.busan.kr> |



22nd Busan Symphony Orchestra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I. 피젯티 - 소포클레스의 <에디프스 왕>에 의한 3개의 전주곡(2003)
- L. v. 베토벤 - 바이올린협주곡 라 장조 작품 61(1806)
- 정수란 - 관현악을 위한 "Response"(2008)
- I. 스트라빈스키 - 무용모음곡 "불새"(1919)

바이올린 김복수  
(KBS 교향악단 제1악장)



지휘 박성완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임병원)



2008. 04. 29(화)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www.bso21.com](http://www.bso21.com) 문의 : 051)620-4918, 010-8508-8310

입장권 : R석\_30,000원 / S석\_20,000원 / A석\_10,000원 / 학생\_5,000원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부산은행 전지점, 동보서적(803-8000), 영광도서(816-9500), 면학도서(623-9404), 동아서적(624-8817)



# 부산시립교향악단 4월 연주회 안내

## 제438회 정기연주회

- 글린 카 아라곤의 호타 (스페인 서곡 제1번)
- 슈니 케 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 드보르 작 교향곡 제8번

# 4.8 화

7:30 pm



바이올린 · 사샤 로즈데스트벤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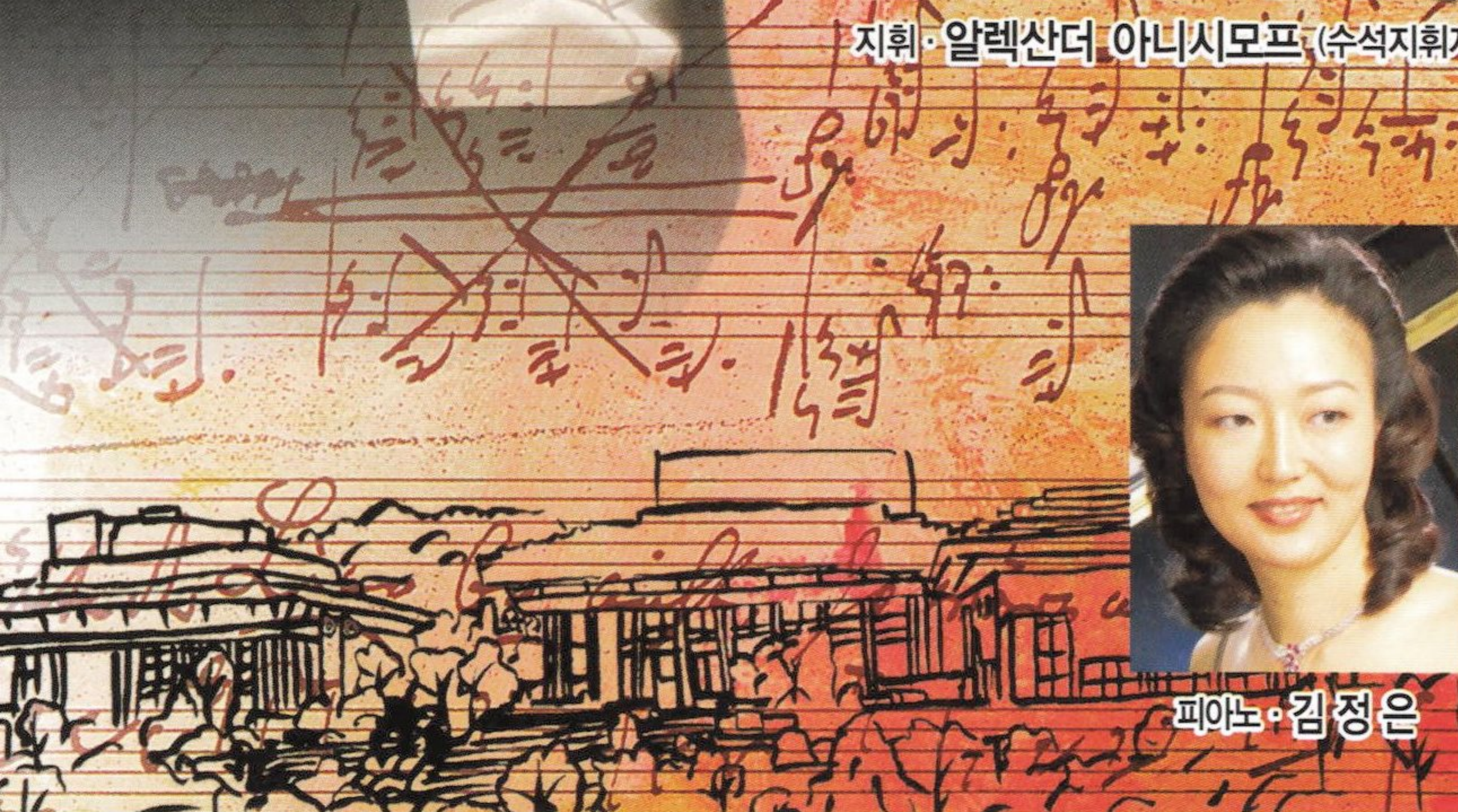
지휘 ·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수석지휘자)

## 제439회 정기연주회

- 덴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 메도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 브람스 교향곡 제4번

# 4.15 화

7:30 pm



피아노 · 김정은

## 제440회 정기연주회

- 드보르 작 첼로 협주곡
-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

# 4.24 목

7:30 pm



첼로 · 송영훈

주 최 \_ 부산광역시

문 의 \_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www.bsculture.bu

입장권 \_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 매 \_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link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부산 찾는 첼리스트 송영훈

클래식 음악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첼리스트 송영훈(35).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그는 무대에서 더욱 큰 매력을 발산한다.

송영훈은 바이올린을 배우는 형을 따라 5살때 음악 공부를 시작했다. 5살 어린이에게 내면의 깊이를 담은 첼로가 어려운 악기였지만 당시 그는 형보다는 큰 악기를 하고 싶어 멋모르고 첼로를 선택했다. 나중에야 첼로보다 더 큰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가 있다는 걸 알았다. 만약 콘트라베이스를 먼저 알았다더라면 첼리스트 송영훈의 지금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자신도 궁금할때가 많다. 현재 미국 보스톤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송정훈이 그의 형이다.

11세 때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면서 국내 음악계에 이름을 알린 송영훈은 이화경향 콩쿠르, 한국일보 콩쿠르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유망주로 주목 받았고 1988년 형과 함께 미국 유학 길에 올랐다. 송영훈은 줄리어드 예비학교에서 실기 장학생으로 공부하면서 ASTA콩쿠르, 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영 솔리스트 콩쿠르, 뉴저지 심포니 오케스트라 영 아티스트 콩쿠르, 줄리어드 엘가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였다.

줄리어드 예비학교 졸업 당시, 전체 실기 최고상인 '최고 예술상 리더십'을 수상한 송영훈은 1992년 줄리어드 음대를 거쳐 요요마와 린 헤럴을 길러 낸 찰닝 로빈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영국의 노던 왕립 음악원에서 유학하였다. 이 시절 송영훈은 랄프 커쉬바움을 사사하면서 노던 왕립음악원 콩쿠르 전체 대상, British Council of Art & Science 주관 'The English speaking Union's Award' 수상, SEM Group 'Concerto Award Concert' 수상 등의 영예를 누렸다.

세계 유명 콩쿠르를 석권하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챔버 오케스트라, 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저지 심포니 오케스트라, USC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욕 챔버 오케스트라, 영국 노던 왕립 음악원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한 송영훈은 최근 Finnish Radio Symphony Orchestra(Dimitri Slovodnik 지휘), Tapiola Chamber Orchestra(Penderecki concerto 작곡가 참석), Helsinki Philharmonic Orchestra 등과도 협연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 서울신포니에타오케스트라,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천시립

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등과 연주했다.

그 외 줄리어드 음악학교 초청 Yo-Yo Ma Master Class에 최연소 참가자로 선발되어 연주한 송영훈은 줄리어드에서의 리사이틀, 주한 이태리 한국 대사관 초청 이태리 순회 연주회, 영국 노던 왕립 음악원 주최 독주회, 영국 맨체스터 첼로 국제 음악제 선발 연주, 핀란드 헬싱키 오페라 홀 독주회, 뉴욕 Merkin Hall 독주회, 문화 일보 6주년 기념 독주회 등 여러 차례의 독주회를 통하여 솔로리스트로서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1996년부터 세종 솔로이스츠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송영훈은 1997년 세종 솔로이스츠와 전국 순회공연도 가졌다. 1999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실내악단인 금호 현악사중주단의 멤버로 국내는 물론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떠나가고 있다. 2003년 1월에는 비올리스트 김상진,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비엔나에서 활약중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M.I.K 앙상블을 창단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ECO)의 객원 수석으로 일본 11개 도시 투어, 영국, 독일, 스위스 투어, Barbican Center 연주, Dortmund Konzert Haus 연주, 스위스 Tonhalle 연주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이며 2002년에는 한국의 문화대사로 임명되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음악이지만 이제 그는 음악없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 현재도 송영훈은 끊임없는 학구열로 핀란드 시벨리우스 음악원(Sibelius Academy)에서 거장 아르토 노라스를 사사하고 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 송영훈은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를 연주한다. 이곡은 1892년 뉴욕에 있는 국립음악원 원장에 취임하면서 당시 드보르작이 열중했던 아메리카 인디언의 민요와 흑인 영가, 그리고 고향 보헤미안 민요를 독창적으로 조화시킴으로서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명곡으로 꼽히고 있다.

첼로 협주곡의 왕이라 할 수 있는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을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연주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는 송영훈. 아름다운 부산 바다와 따뜻한 부산 사람들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린다.



## 부산시립극단 제 31회 정기공연

# 한 여름 밤의 꿈

- 4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 4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참 이상한 꿈이야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꿈이야

사람의 머리로 이 꿈을 해몽하려는 놈은

당나귀처럼 머리석은 놈일거야”



부산시립극단이 환상적이면서도 로맨틱한 러브스토리인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으로 2008년 첫 무대를 연다.

셰익스피어 최초의 낭만희극인 ‘한 여름 밤의 꿈’은 한 여름 밤 요정의 장난에 휘말린 젊은 연인 두쌍의 얽히고 설킨 사랑을 그린 낭만적 러브스토리로, 젊은이들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 현실과 꿈의 만남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연출을 맡은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손기룡은 셰익스피어 원작을 그대로 살려 이번 작품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정통극으로 꾸몄다. 환상적이면서도 동화같은 작품배경을 위해 다채로운 의상들과 요정의 느낌을 살린 분장,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몽환적인 숲과 무대를 선보이며, 요정들로 특별출연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아름다운 춤사위도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원작/셰익스피어
- 역자/이정래
- 연출/손기룡(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 안무/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출연/박찬영, 임해련, 이혁우, 유성주, 김은희, 박정민, 엄준필, 이현주, 이은주, 이돈희, 황창기, 염지선, 박민철, 손윤혜, 윤유경, 신동훈, 백기성, 이환희, 제정경
- 특별출연/정진희, 김주령, 권봉정, 이정인, 김진영(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합창단

# 제 125회 정기연주회

- 4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월 아름다운 사랑의 테마를 들려준 부산시립합창단이 4월 10일 제125회 정기연주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수석지휘자 김강규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바흐의 여섯 개의 모테트 중 가장 유명한 곡인 '예수, 나의 기쁨(Jesu, Meine Freude, BWV 227)' 과 합창음악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무반주 합창곡들로 무대를 꾸민다.

'말' 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mot' 에서 유래된 '모테트(motet)' 는 다성 음악의 모습을 하고 있는 종교합창음악이라 할 수 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그의 생전에 모두 7곡의 모테트(BWV 225~231)를 썼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중 BWV 225~229 5곡만이 바흐의 곡으로 알려져 있다.

바흐의 모테트는 2중합창이라는 형식과 정교하게 만든 코랄, 그리고 엄격한 성악푸가 형식 등 일반적인 모테트와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모테트는 철저하게 무반주의 형식을 고집하고 있지만 바흐의 모테트는 통주저음(오르간 등) 악기로 연주되거나 현악 혹은 관악과 함께 연주되기도 하는데 이번 연주는 하이든 현악앙상블과 함께 연주된다.

이번 정기연주회의 전반부에 연주되는 'Jesu, meine Freude(BWV 227)' 는 바흐가 작곡한 모테트 중 가장 긴 곡이다. 이 곡이 누구를 위해 쓰여 졌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1723년 7월 18일 췌 체신장관의 부인이었던 요한나 마리아

키즈(J.M.Kees)의 추도식을 위해 쓰여 졌다고 전해진다.

5성부 총 11곡으로 이루어진 이 모테트의 텍스트는 요한 프랑크(Johann Frank)의 1650년 찬송코랄에서 6개의 절이 차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 곡은 짜여진 곡의 구조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5성 푸가로 이루어진 제 6곡을 중심으로 가장 바깥 곡인 제 1곡과 마지막 11곡은 같은 코랄로 위치시키고 있으며 3곡, 5곡, 7곡 그리고 9곡은 주제 코랄 멜로디를 각기 다른 변주의 모습으로 작곡했다. 그리고 4곡과 8곡은 각각 최고음의 3성부와 저음의 3성부의 합창을 각각 위치시키고 있고 마지막으로 2곡과 10곡의 작곡재료는 동일하다.

연주의 후반부는 현대작곡가들이 작곡하거나 편곡한 아름답고 흥겨운 8성부의 합창곡들로 처음과 마지막의 전체합창을 꾸몄고, 그 무대 사이에 6명으로 구성된 아카펠라 그룹이 비틀즈의 팝음악 2곡과 인어공주 중에 나오는 'Kiss the girl' 과 'Sh-Boom(Life could be a Dream)' 을 남성합창으로 연주한다.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교향악단 4월 정기연주회

# 봄, 그 환희

따스한 봄바람과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은 평화로운 한폭의 그림을 보는 느낌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싱그러운 4월 환희를 클래식 선율에 담아 들려준다.

4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지휘로 세 차례 정기연주회를 연다. 그 화려한 음의 향연을 미리 즐겨보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부산시립교향악단

### 제438회 정기연주회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사샤 로즈데스트벤스키(바이올리니스트)

- 4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사샤 로즈데스트벤스키

2008년 첫 연주일정을 시작하는 수석 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사샤 로즈데스트벤스키가 부산 음악 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협연자 사샤 로즈데스트벤스키는 러시아의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이다. 예후디 메뉴인은 사샤 로즈데스트벤스키를 '그 세대 중에서 가장 재능있고 정련된 바이올리니스트' 라고 평했으며, 이스라엘의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브리 기틀리스

는 '사샤 로즈데스트벤스키가 위대한 예술가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그의 음악에 대한 탐구는 열정적이고, 섬세하며, 지적이다' 라고 격찬하기도 했다.

솔리스트로서 음반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샤 로즈데스트벤스키는 슈니케가 그와 빅토리아 포스트니코바를 위해 작곡한 슈니케 협주곡 제6번을 로얄 스톡홀름 필하모닉과의 협연으로 발매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대음악에 감성과 인간애를 불러 넣은 작곡가 슈니케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을 사샤 로즈데스트벤스키의 연주로 국내 초연한다. 이곡은 1984년 9월 11일, 베를린 필과 기돈 크레머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이외에도 19세기의 낭만이 넘치는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 사장조 작품 88과 글린카가 스페인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받고 작곡한 '아라곤의 호타'에 의한 화려한 카프리치오(스페인 서곡 제1번)을 들려준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 제439회 정기연주회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김정은(피아니스트)

- 4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김정은

본격적인 공연 시즌을 맞아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39회 정기연주회는 바로크 시대 작곡가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고전시대 작곡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4번', 낭만시대 작곡가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범함과 섬세함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김정은이 협연자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김정은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同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프랑스 에펠노르말 콩세르티스트 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정은은 초연 당시 '오케스트라의 협연 속에 실려 하늘로 날아오르는 피아노 선율이 천상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길을 보는 듯 하다' 며 격찬 받은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4번을 연주한다. 2부를 장식하는 브람스 교향곡 제4번은 브람스가 52세에 쓴 작품으로 노년기에 이른 브람스의 심경의 깊이가 나타나 있는 곡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08 교향악축제' 에서 17일 같은 프로그램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 제440회 정기연주회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송영훈(첼리스트)

- 4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송영훈

준수한 외모와 무대 매너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첼리스트 송영훈이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40회 정기연주회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첼리스트 송영훈은 11세 때 서울시향과의 협연으로 국내 음악계에 데뷔하였다. 줄리어드 예비학교에서 전체 실기 최고상인 '최고 예술상 리더십' 을 수상하였으며 1992년 줄리어드 음대를 거쳐 영국의 노던 왕립 음악원에서 유학하였다. 이 시절 그는 노던 왕립음악원 콩쿠르 전체 대상,

British Council of Art & Science 주관 'The English speaking Union's Award' 수상, SEM Group 'Concerto Award Concert' 수상 등의 영예를 누렸다.

세종 솔로이스츠, 금호 현악사중주단의 멤버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펴나가고 있는 송영훈은 2003년 1월 비올리스트 김상진,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비엔나에서 활약중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M.I.K 앙상블을 창단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슬라브적인 열정과 아메리카 민요가 가지는 애수 어린 서정성을 갖춘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과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철학적 관조와 처연한 통곡이 잘 어우러진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정기연주회 전인 4월 23일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리는 성산교향악 축제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주한다.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PREVIEW 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0회 정기 연주회

봄의 여정 Road '길'

- 4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객원지휘 배 양 현(부산대학교 국악과 교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4대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배양현이 객원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0회 정기연주회-봄의 여정 Road '길' 이 4월 24일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무대는 보다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의 주 공연장인 부산문화회관을 벗어나 구 문화회관인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객원지휘를 맡은 지휘자 배양현은 풍류음악에서부터 민속음악, 궁중음악, 무용음악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활동해왔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배양현 교수의 노련한 지휘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ダイナミック한 연주가 만나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한 화음을 들려줄 이번 무대에서는 첫 곡으로 태평소의 힘찬 선율로 시작되는 이경섭 곡 '공놀이' 를 부산초연한다. 이어 소금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이준호 곡 소금협주곡 '길' 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한영길의 연주로 들려주며, 저음의 매력적인 거문고 소리로 기다리는 그리운 님을 표현한 강봉천 편곡 거문고 협주곡 '정읍사' 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권은영이 부산초연 무대로 들려준다. 해학 넘치는 김희조 편곡의 판소리 '수궁가' 중 '가자 가자 어서가자' 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의 소리로 들려준다. 마지막 곡으로는 KBS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이준호 곡의 경쾌하고 흥겨운 동살풀이 장단과 별달거리 장단으로 구성된 사물놀이를 위한 합주곡 '길' 이 연주된다. 부산초연 무대로 연주되는 '길' 은 사물놀이의 세계화를 이끈 예인 김덕수의 인생 50년을 국악관현악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인 이주현, 최오성, 신문범, 전학수가 협연을 맡아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들려준다.



거문고 권 은 영  
(부산대학교 국악과 교수)



판소리 박 성 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소금 한 영 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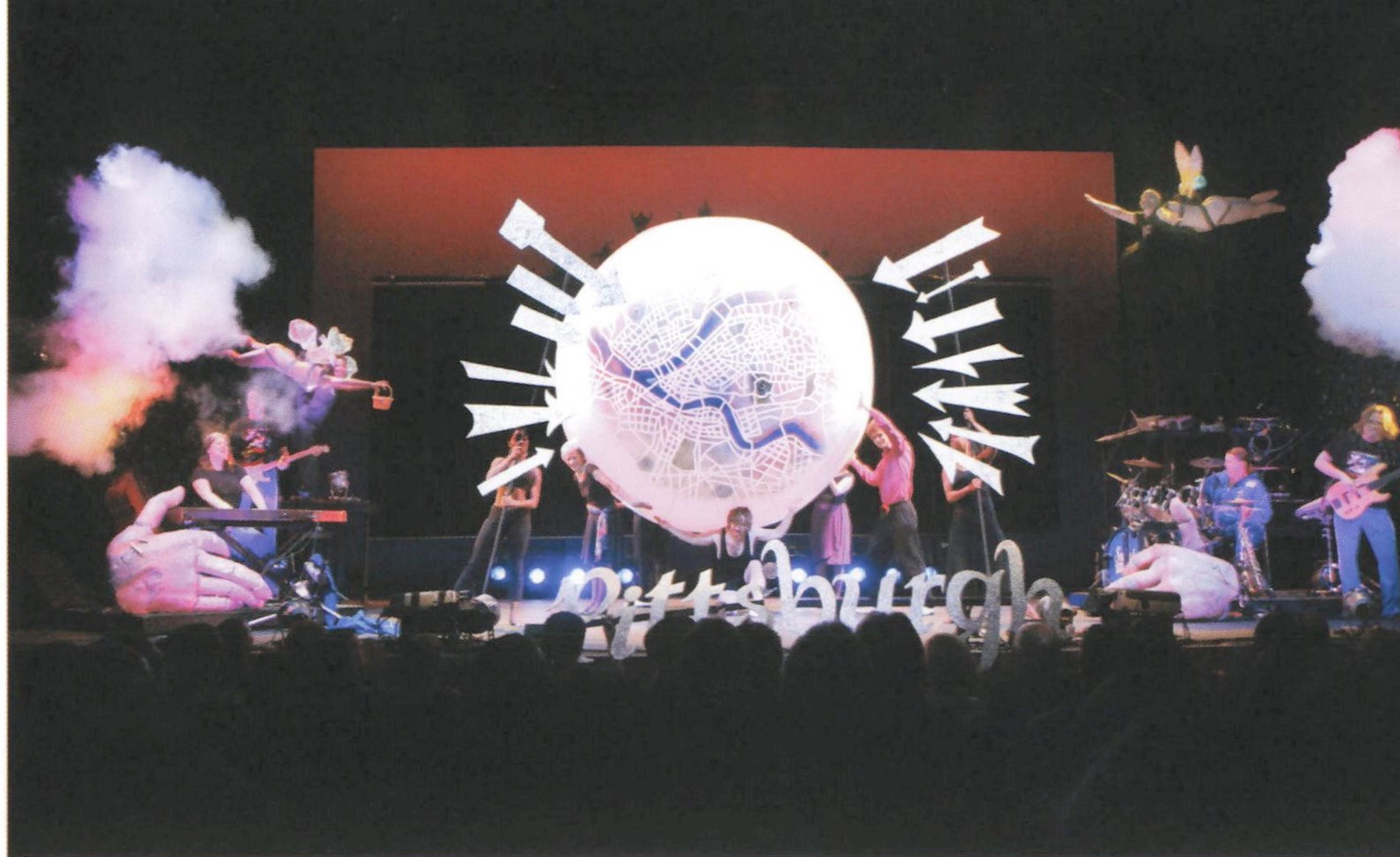
사물놀이 이주현, 최호성, 신문범, 전학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입장료** 초대(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초대권 300석 선착순 배부)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PREVIEW 5

# 제 5회 부산국제연극제



〈미국〉스퀼크 오페라 BIPAF: The Opera

- 5월 3일~5월 15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경성대학교, 가마골 소극장, 액터스 소극장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은 세계적인 작품들을 만나는 2008 부산국제연극제 다섯 번째 축제가 5월 3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막이 오른다.

세계 연극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국제연극제는 올해 미국,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8개국 20개 작품들이 음악극 스테이지, BIPAF 스테이지, 가족극 스테이지 총 3개의 섹션과 특별 섹션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매년 새로운 컨셉을 선정하여 컨셉에 맞는 작품들을 선보여 온 부산국제연극제의 2008년 컨셉은 음악극 스페셜(Music Theatre Special). 21세기 공연예술을 이끌 선두 주자로서 주목받는 음악극은 춤과 노래, 스펙터클한 무대가 어우러져서 대중의 감성에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막작으로는 미국의 스퀼크 오페라(Squonk Opera), 폐막작으로는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의 '뮤지컬 소나기'가 선정되어 부산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5월 3일과 4일 부산국제연극제를 통해 아시아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스퀼크 오페라(Squonk Opera)팀의 개막작 'BIPAF: The Opera'는

부산 댄스 공연팀과의 공연, 부산 출신 유명인사들과의 인터뷰, 부산시민들의 풍경, 지난 부산국제연극제의 생생한 현장, 부산어린이들이 그린 상상의 지도 등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현란한 영상과 현대적인 음악을 사용하여 축제적인 분위기로 표현한다. 199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에서 창단된 스퀼크 오페라는 전통적인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예술양식 모두를 조합하여 새로운 종류의 오페라를 창조해왔다.

폐막작으로 선정된 서울시예술단의 뮤지컬 '소나기'는 소설 '소나기'를 4년여의 준비 작업을 거쳐 제작한 작품으로 2004년 초연무대를 가졌다. 2008년 새롭게 선보이는 소나기는 초연무대의 강점만을 부각해 원작 본연의 스토리를 충실히 따른 작품이다.

- 문의 :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 www.bipaf.org)
-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이벤트 : 보고싶은 작품과 선정이유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게시판에 남겨 주시면 채택된 분께 초대권 2매를 드립니다.  
(마감 4월 20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7~8)

### 음악극 스테이지

BIPAF: The Opera	5/3(토)-5/4(일)	부산문화회관
뮤지컬 '소나기'	5/14(수)-5/15(목)	부산문화회관
카바레쇼 '나프탈렌'	5/8(목)-5/10(토)	부산문화회관
뮤지컬 '위대한 캣츠비'	5/8(목)-5/14(수)	경성대학교
박성희의 소리마당	5/10(토), 5/13(화)	부산문화회관
뮤지컬 '친구'	5/11(일)-5/12(월)	금정문화회관
신화와 영웅	5/11(일)-5/13(화)	시민회관

### BIPAF 스테이지

토끼와 나폴레옹	5/4(일)-5/5(월)	경성대학교
2008 부산연극제 대상작	5/5(월)-5/6(화)	부산문화회관
그림자인형극 '까르노 루췌'	5/5(월)-5/7(수)	경성대학교

M3	5/8(목)-5/9(금)	시민회관
선녀와 나무꾼	5/8(목)-5/11(일)	경성대학교
카르마	5/10(토)-5/11(일)	시민회관
올리브 나무_all live	5/13(화)-5/14(수)	부산문화회관
동화의 관	5/13(화)-5/14(수)	경성대학교

### 가족극 스테이지

옛날 옛적에...	5/4(일) - 5/5(월)	시민회관
피터와 늑대	5/5(월)-5/6(화)	경성대학교

### 소극장 스테이지

뮤지컬 'Chat on love'	5/3(토)-5/12(월)	가마골소극장
12개의 성모상	5/3(토)-5/12(월)	액터스소극장

» 공연제목/일정/장소 순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 이두식

“비엔날레는 새로운 경향의 새로운 미술을 보여주는 미술 축제”  
 9. 6 ▶ 11. 15 낭비 · 예술 · 문화 · 비시간성의 향해 · 전위적 정원



“비엔날레는 새로운 경향의 새로운 미술을 보여주는 미술 축제입니다. 30여 개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08 부산비엔날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부산비엔날레 이두식 운영위원장(홍익대학교 교수, 61).

지난해 7월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으로 부산과 인연을 맺은 이두식 운영위원장은 스물여섯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한 이후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상들을 휩쓸며 화려한 작가생활을 해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양화가 중 한 사람이다. 제 17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지낸 그는 55회의 개인전을 비롯해 상파울로 비엔날레, 아시아 평화미술전, 북경 비엔날레 등에 참가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해 이두식 운영위원장 선임을 두고 부산비엔날레를 잘 모르는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다소 진통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두식 운영위원장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부산비엔날레가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지금은 현대미술전, 바다미술제, 부산조각프로젝트의 전시감독들과 작가선정 마무리작업을 하며 본격적인 비엔날레 준비로 분주하다.

9월 6일 막이 오르는 2008 부산비엔날레는 ‘낭비(Expenditure)’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부산시립미술관, 광안리해수욕장, APEC나루공원 등 부산전역에서 펼쳐진다. 문화와 예술이 생산과 구축, 보존과 증강의 행위보다는 이러한 생산물들을 소모, 방출시키는 낭비적 행위와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2008 부산비엔날레 행사주제인 ‘낭비’는 오늘날의 문화와 예술을 정의하는 긍정적인 표현이다. 회화, 사진, 영상, 설치, 야외조각 등 전 세계에서 초대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독특한 낭비의 철학과 현대 미술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두식 위원장은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독일의 뮌스터조각프로젝트, 베니스비엔날레, 독일 카셀 도큐멘타, 터키 이스탄불비엔날레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비엔날레를 직접 둘러봤다. 요즘 그는 그동안 작가로 경험했던 많은 비엔날레들과 부산비엔날레를 비교하면서 부산비엔날레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유명 비엔날레 외에 작은 도

시에서 열리는 비엔날레까지 꼽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1,000여 개가 넘는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 특성을 살린다면 부산비엔날레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숙제를 풀기위해 그는 부산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엔날레라고 하면 으레 부산과 광주 비엔날레를 비교하지만 작가들 중에서도 부산비엔날레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에 많은 점수를 줍니다.”

실제로 부산비엔날레는 문화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각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평가’에서 종합평가 점수 85.02점(2004년 81.3점)으로 84.72점을 얻은 광주 비엔날레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적은 예산으로 부산 시민과 부산의 예술인들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비엔날레를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부산비엔날레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미술인들의 관심을 받는 만큼 우리 미술계, 특히 부산의 작가들이 외국작가들과 교류를 하고 큰 세계로 나아가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그는 동북아 물류도시인 부산의 경우 많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다.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듯이 미술은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장르입니다. 시계나 옷, 가구 등 모든 물건에 미술의 힘이 닿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두식 운영위원장은 부산비엔날레 기간 동안 우연히라도 미술을 만나고 접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것이라 이야기한다.

올해 그는 부산비엔날레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미술축제’로 만들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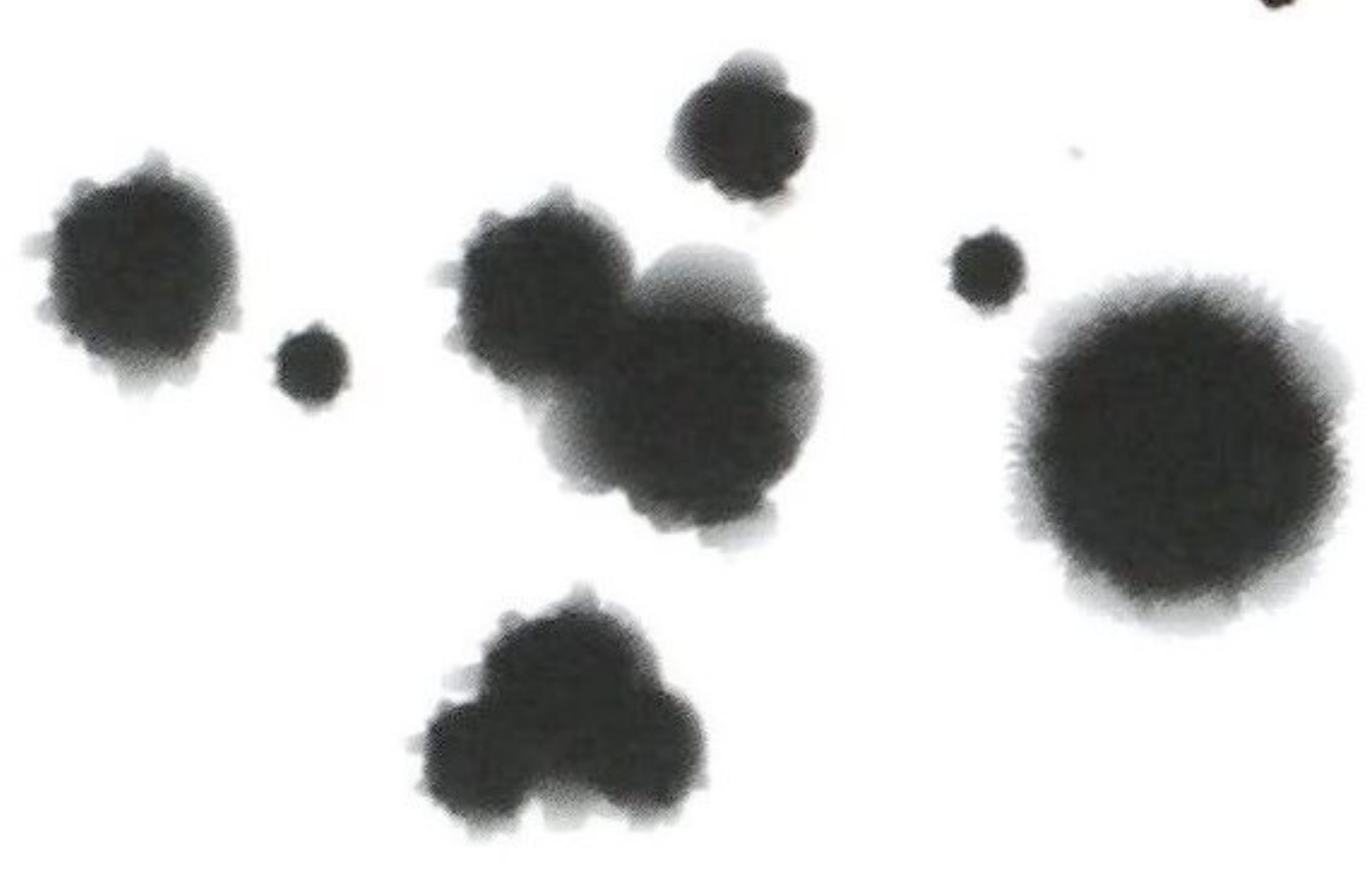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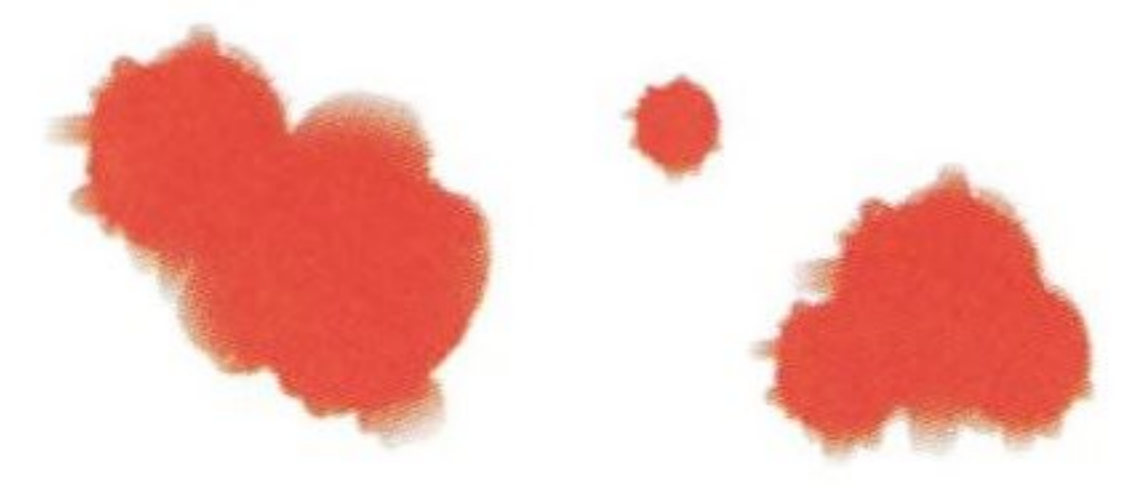
“부산비엔날레의 성패는 물론 좋은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비엔날레를 통해 미술이 고상한 사람들만이 즐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과 함께 하는 새로운 도전에 이두식 운영위원장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즐겁다.



김소월의

# 진달래꽃



민립 김 상 훈 | 시인, 민족시가 연구소 이사장

“산 높고 물 맑은 우리 마을에  
움돈고 꽃피는 봄이 왔어요  
한 겨울 땅속에 잠자던 개구리  
바스스 잠깨어 뛰어 납니다

앞내와 뒤뜰에 얼음 풀리고  
남산에 쌓인 눈 녹아내리니  
넓은 들 잔디는 속잎이 나고  
실버들 가지가 파랑습니다”

“먼 산에 진달래  
울긋불긋 피고  
보리밭 종달새  
우지우지 노래하면  
아 아득한 저 산 넘어  
고향이 그리워라  
버들피리 소리 나는  
고향이 그리워라”

지금으로부터 자그만치 60여년전 초등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의 풍금소리에 맞추어 신나게 부르던 봄의 노래요, 망향(望鄕)의 노래이다.

봄을 소재로 했든지, 봄과 연관을 갖는 노래로서는 역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제일먼저 손꼽지 않을 수 없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 오리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김소월은 우리나라 현대문학 100년의 역사에 대표적인 민족시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의 시는 향토애(鄕土愛)의 감정을 고향에 대한 단순한 애착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체험하는 실의와 좌절, 절망과 체념 등을 합일해서 그려내고자 한다. 나아가 그의 詩



에는 우리네의 토착적 서정과 함께 전통적인 한(限)이 서려 있으며, 현실적 체험만이 아닌 미체험의 부분까지 왕성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적 효능을 높이고 있다.

소월시인의 본명은 정식(廷湜)이요, 평북 구성에서 1902년에 태어났으며 오산학교(五山學校)와 배제고등학교를 거쳐 일본 동경상과 대학에서 공부했다.

오산학교시절 민족주의자 조만식(曹晩植) 선생님께 많은 감화를 받았으며 서춘(徐椿), 이돈화(李敦化), 김억(金億) 등을 스승으로 모시고 인격형성과 인간성 도야의 알찬 과정을 밟았다. 특히 그의 시재(詩才)를 인정한 안서(岸署) 김억(金億) 선생을 만난 것이 그가 민족시인으로 크게 성장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광산, 신문지국 등 사업의 잇단 실패로 생활고와 심한 염세증에 시달리다가 1934년 32세의 나이로 자살했다.

그의 작품으로는 <진달래꽃>을 비롯 <산유화> <초혼> <그리워> <예전엔 미쳐 몰랐어요> <첫치마> <먼 후일> <못잊어> <달맞이>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 <강촌> <제비> <산> <왕십리> 등 명작들이 적지 않다.

좋은 시에는 많은 작곡자들이 몰리게 마련이다. <진달래꽃> 처럼 널리 알려진 시도 드물고, <진달래 꽃>만큼 많은 작곡자들이 작곡한 노래도 드물다.

그 중에서도 작곡으로 가장 많은 애창자를 불러모은 노래는 정회갑 작 <진달래꽃>이 단연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작곡자 정회갑(鄭回甲)은 1923년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사범학교 시절부터 트럼펫을 불렀고 4학년 때 음악부장이 되자 피아노에 열중하게 되면서 장차 피아니스트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1942년 3월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군산 소화초등학교로 부임했으나 보다 큰 뜻을 품고 1946년 2월 서울 음대에 입학하여 작곡을 전공하게 된다.

법학공부를 해서 판, 검사가 되든지, 의학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기를 바랬던 그의 부모들은 광대나 소리꾼으로서 극장 귀신이 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학비마저 보내주지 않았다.

그는 사범학교시절 관악기를 만졌던 인연으로 1946년 고려교향악단과 1947년 서울교향악단에서 혼 수석주자로 실제 음악연주에 뛰어들었고 김소월의 시를 즐겨 암송하기도 했다. 그의 처녀 가곡 <진달래꽃>은 바로 이 시기인 1947년, 서울 음대 2학년 재학시 작품이다. 아직 화성법강의가 끝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쓰지말라고 한 것을 몰래 작곡한 것이다. 이 곡은 확대된 3부형식으로 멜로디의 흐름이 유려하고 피

아노반주에 있어서도 화음처리가 틀에 잡혀, 질서 정연하며 특히 4분의 4박자의 소절 끝부분 16분음표의 여린박자의 공간처리는 절묘하여 한국적 운(韻)을 잘풀고 있다고 하겠다.

음악인으로서 그의 본령은 가곡이 아니고 기악곡이다. 가곡은 <진달래꽃> 외에 신석정시인의 <작은 풍경> <네눈망울에서는> 서정주시인의 <민들레꽃> 김해강시인의 <출범(出帆)의 노래> 구상시인의 <백련> 합창곡 <구월의 4월> 등이 있고, 기악곡으로는 1961년 3월 <가얏고와 관현악을 위한 주제와 변주곡> 1963년 <두 대의 가야고를 위한 소품> <전북농악채보집> 1968년 <경기도 농악의 연구>를 내놓기도 했으며 1967년 10월 피아노 조곡 <한국무곡>을 발표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곡은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보아 톤시츠가 1969년 파리 세계음악제에서 연주, 갈채를 받았다. 같은해 11월 네덜란드의 베르젠에서 있었던 국제음악제에서도 소개되었으며, 1970년 제2회 서울음악제에서도 연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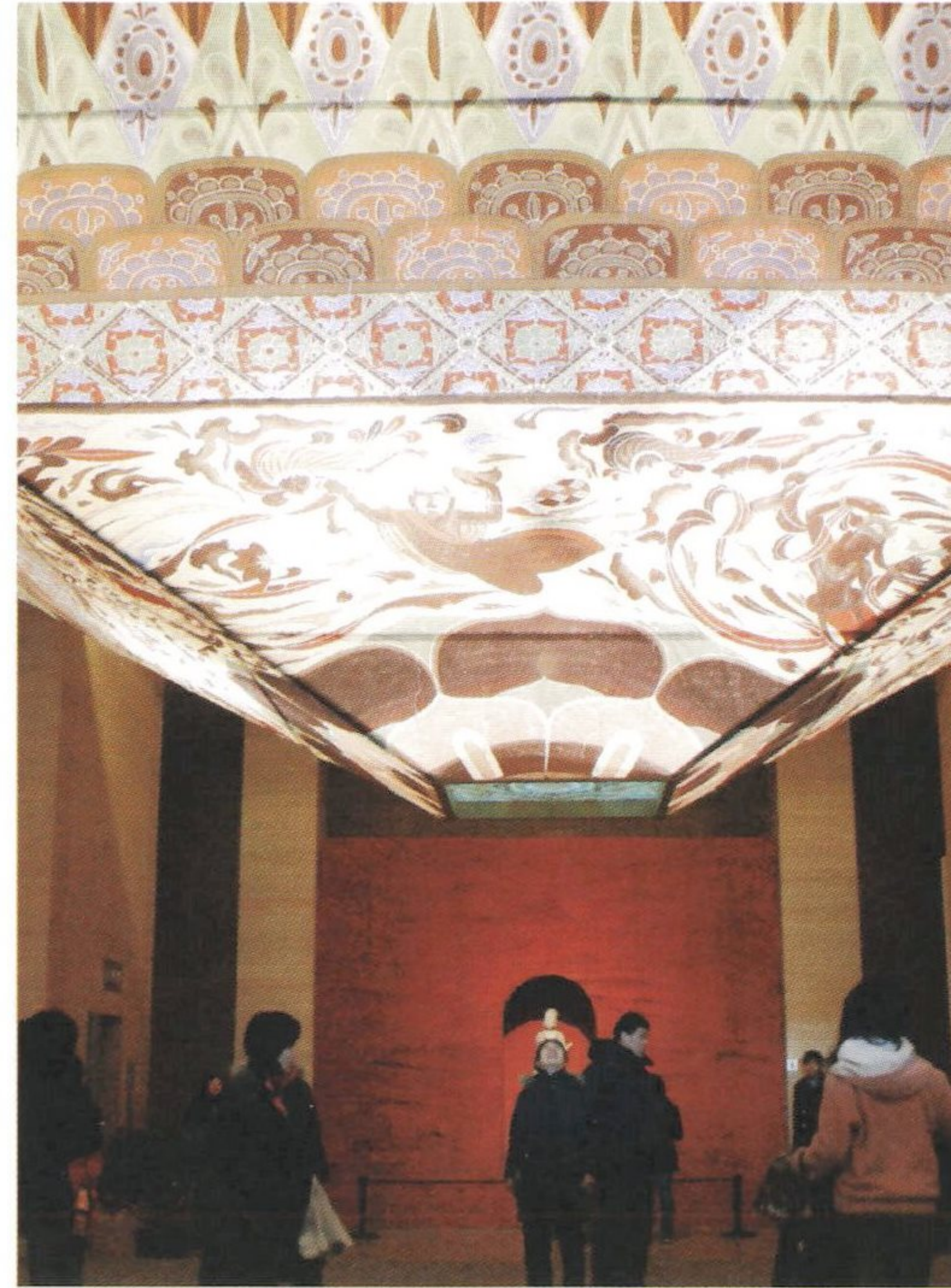
1974년 11월 미국 로스엔젤리스에서 실내악 <시나위-아라리요>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스케췌>를 발표했으며, 다음해 서울음악제 출품작품으로 실내악 <인성(人聲)과 5개의 악기를 위한 시나위>를 발표했다.

이밖에 영화음악작품으로 1955년 <피아골> 1956년 <격퇴> 1957년 <사랑> 1958년 <생명> 1959년 <젊은 아내> 1960년 <나그네> 1961년 <두고온 산하> 등이 있고, 우리의 전통적 가락에 애착을 갖고 국악과 양악의 합주를 시도한 것 등 특기 할만한 업적들이 많다.

<진달래꽃>만으로도 한국가곡에 하나의 에포크(epoch)를 가져다 준 인물임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 The Lights of Dun Huang

## 중국 돈황 예술의 빛

박 건 해 | 중국 통신원

- 1 중국미술관의 외관에 재현된 돈황석굴
- 2 돈황벽화의 천정장식 도안화
- 3 돈황벽화
- 4 사태태자 본생고사





중국의 대표적인 국립미술관인 중국미술관에서 1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성세화광(盛世之光)이란 제목으로 돈황 예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렸다.

미술관의 외벽부터 석굴의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 천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현장감 있게 작품을 소개하고자 애쓴 모습이 보였다. 원본은 벽화라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시된 작품들은 벽화를 종이에 그대로 본 떠서 그린 임모(臨摹)이고 조소 작품 역시 기둥이나 벽에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을 재현해서 만든 작품이었다. 그러나 변화 있고 생동감 있는 디스플레이에 의해 원본을 감상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잊게 만들었다.

돈황은 간쑤성 서부의 도시로서 주취안 지구에 속하는 현청 소재지이며, 간쑤-신장 사막 내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이다.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실크로드를 따라 펼쳐진 전통적인 중국인 거주지의 서쪽 끝에 해당하며, 서양에서 중국 통치영역으로 들어가는 외국상인들이 처음으로 거쳐 가는 교역도시였다.

수나라 시대에서 성당(盛唐)에 이르는 시기는 대규모 석굴의

개착과 조각제작의 절정기였으며 석굴사원은 중국의 북방, 서방과 파촉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현존하는 유명한 석굴사원은 산동의 운문산, 타산석굴, 돈황의 막고굴, 용문석굴, 병령사석굴, 천룡산 등이다.

돈황벽화가 그려져 있는 막고굴은 또한 천불동이라고 불리며 감숙성 돈황현 동남 25킬로미터 떨어진 대권의 서측, 명사산에 위치해 있다. 유명한 막고굴은 고대에 서방과 교류하던 '하서회랑'의 서역이다. 당나라 때는 도성 장안에 서역 호족의 문화가 범람함에 따라 서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종의 이국취미가 일세를 풍미했다.

이 시기의 돈황은 군사기지라기보다는 분명히 동서 문화 교류, 혹은 동서무역의 일대 중개지로서 번영했다. 옛날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여전히 사막에 둘러싸인 도시라는 것이다. 도시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사막이 펼쳐져 있다. 모래와 자갈의 불모지가 펼쳐져 있는 것이다. 돈황석굴은 왕모래가 진흙 등과 섞여 이루어진 역암이어서 불상을 조각할 수도 없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곳이었다.



그래서 벽면에 흙을 발라 벽화를 그렸고, 공간에 따라 강바닥에서 채취한 흙을 이겨 불상을 조성했다. 흙으로 만든 소상은 나무골재에 풀새끼를 묶고 강바닥에 침전된 고운 점토를 삼베나 모래 등과 섞어 형상을 만들고, 이 위를 백토로 마감한 뒤 색채나 금박을 입혀 아름다운 상을 만든 것으로 이른바 채색조소라 부른다. 현재 16킬로미터 길이의 절벽 면에 492개의 굴이 남아 있다. 돈황석굴은 현재 492동, 여기에는 채색된 소상이 2,400점, 벽화가 4,500평방미터가 있다.

돈황 막고굴의 석굴은 중국 불교 예술의 정수를 담은 세계적 보고이다. 이는 단순한 불교교리를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활풍속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돈황석굴은 건축, 조소, 벽화라는 3개의 장르가 결합된 종합 예술로 건축은 조각 벽화의 매개물이며 조각은 불굴의 주체이며 벽화는 사원을 장엄하게 하기 위해 장식, 미화하는 작용과 조각이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표현한다. 그러나 돈황벽화의 경우 오히려 내용은 조각에 비해 풍부하며 조소상보다도 더욱 높은 가치를 보인다. 돈황석굴의 내부에는 거대한 변상도와 각종 불교 이야기 그림이 약간의 빈틈도 없이 그려져 있으며 천정부부분에는 각종 장식도안화로 장식하여 독립된 화려한 불국 세계로 꾸며졌다.

돈황벽화가 중국의 3대 석굴인 낙양의 용문산 서성 대동의 운강석굴에 비해서 차별화 되는 것은 돈황의 석굴이 10개 조대에 걸쳐 1,000여 년 간 시대별 변화 양식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점과 벽화의 내용면에서도 다른 석굴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특징을 지녔다는 점이다.

돈황벽화는 불교사상의 선양을 위한 것으로 벽화 내용의 소재도 당시 유행하던 불교사상을 반영한 것이며 벽화의 표현형식도 불교사상이 표현하려는 내용과 소재에 따라 부단히 변화했다. 총체적으로 돈황의 벽화 표현양식의 변화는 존상화로부터 설법도 고사화로 불교 사적화, 공양인 화상, 장식도안 등 7개로 나뉜다.

경변벽화는 막고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경변벽화는 불경에 근거하여 그린 회화를 총칭한다. 만일 경변벽화를 배열한다면 높이가 1미터, 길이가 45킬로미터 정도인 갤러리를 구성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막고굴을 ‘벽화예술의 화랑’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예술화랑’ 중에는 총 32가지 불경변상이 있는데 소위 변상이라는 것은 바로 불경중의 내용을 그

림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각 역사시기에 창작한 벽화에 담겨진 이야기는 예술적인 가치 외에 벽화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 시기의 사회현실을 그려주었으며, 노동자의 근로와 통치계급의 사치한 생활 장면을 보여주었다.

불교 역사변화와 인상화는 경변벽화 외에 돈황벽화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불교 역사벽화는 불교 중국화의 중요한 특징이며 불교 역사벽화 중에는 수많은 형상화된 불교 역사자료가 보존되었다. 역사기록 혹은 민간전설에 따라 그려진 불교역사 인물, 사건, 불교이야기 등 내용과 관련된 그림들이다. 돈황벽화 중에 불교와 관련된 그림은 40곳, 67가지가 있다고 한다. 내용은 불교역사 이야기그림, 감동이야기 그림, 승려사적 그림, 예상도, 불교지리 자료 및 성적도와 같은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불교역사그림들은 중국의 불교발전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사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된 작품 중 ‘사취태자 본생고사’라는 고사화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254굴에 위치하고 북주시기에 제작되었다. 옛날 인도에 대차라는 국왕이 있었다. 그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의 이름이 ‘사취’라 불렸다. 하루는 세 왕자가 함께 산속에 놀러 갔는데 금방 태어난 일곱 마리 새끼 호랑이들이 어미 호랑이 주변에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어미 호랑이가 벌써 맥이 빠져있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첫째, 둘째 왕자는 걱정만 하면서 돌아섰으나 셋째 사취태자는 불쌍한 호랑이를 살릴 생각으로 부처님의 자비심을 발휘하였다. 사취태자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던져 호랑이에게 먹이로 잡아 먹혔다. 아끼던 사취태자를 잃은 국왕은 너무나 슬퍼하며 유골을 사리탑에 묻었다. 그 후로부터 향불이 끊어지지 않았으며 사취는 공적이 원만하여 하늘로 날아가 보살로 변하였다.

그림 속에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은 잔인하고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목숨을 바쳐 공덕을 행하는 모습은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는 고사화였다.

돈황벽화는 몇 천 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과하여 오늘날까지 현대인과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는 듯하다. 아직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은은한 빛을 발하는 이 위대한 문화유산이 계속 잘 보존되고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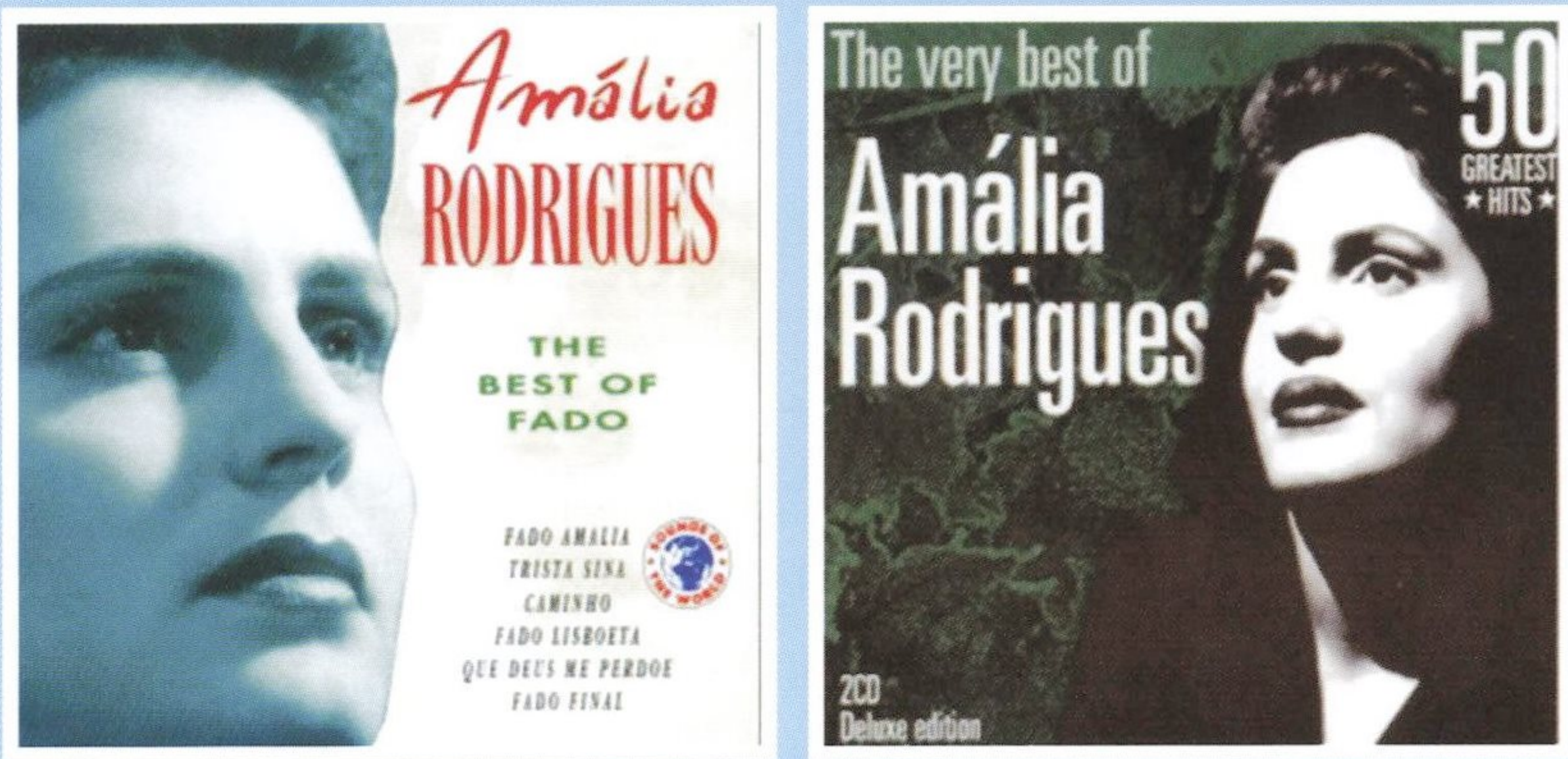


## 포르투갈 II

### 파두의 여신

# ‘아말리아 호드리게스(Amalia Rodrigues)’

황 윤 기 | 음악칼럼니스트



그리스 신화의 영웅 오디세이가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포르투갈의 항구도시 리스본, 지금도 그곳의 늦은 밤 클럽에서는 파두 공연이 열린다.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진 ‘바이루 알뚜’라고 부르는 언덕지구는 리스본의 명물이다. 리스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이곳에는 파두하우스로 불리는 레스토랑들이 있다. 검은 옷을 입고 무대에 오른 가수는 포르투갈 기타의 청승맞은 음색을 따라 이베리아 반도 끝자락의 운명을 절절한 가창으로 토해 낸다.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청중들 역시 엄숙한 가운데 가수와 함께 ‘사우다드’의 절정을 공유한다. 파멸된 인생, 사랑의 슬픔, 향수, 절망 등 리스본 파두 특유의 정서를 담은 노래들은 시간이 깊어갈수록 더욱 큰 울림으로 리스본의 밤을 떠돈다.

1954년의 프랑스 영화 ‘과거를 가진 애정(Les Amants du Tage)’ 속에는 파두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Amalia Rodrigues)’가 등장해서, ‘검은 돛배(Barco Negro)’를 노래한다. 포르투갈 고유의 음악 파두와 ‘아말리아 호드리게스’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아말리아 호드리게스’는 술한 명곡들을 발표하며 파두의 여신으로 군림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 이외의 파두 가수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을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였다.

1920년 리스본 항구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말리아 호드리게스’는 부모와 떨어져 외가에서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린 시절 부두에

서 노래하며 오렌지를 팔았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1938년 리스본에서 열린 파두 콩쿨에서 진가를 드러낸 후 가장 유명한 파두하우스에서 본격적인 파두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포르투갈 사람들의 숙명을 담은 노랫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어두우면서도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목소리, 그리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의 놀라운 가창력과 풍부한 표현력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녀만의 것이었다. ‘Barco Negro(검은 돛배)’, ‘Que Deus Me Perdoe(신이여 용서하소서)’, ‘Duas Luazes(두 개의 빛)’, ‘Naufragio(난파선)’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곡들이 리스본 파두의 명곡으로 남아 있고, ‘아말리아 호드리게스’가 노래했던 명곡들은 후대의 다른 파두 가수가 노래 할 때도 그녀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아말리아 호드리게스’가 현역에서 은퇴할 무렵, 포르투갈 사람들은 과연 누가 그 뒤를 이어 파두의 여왕에 등극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파두 가수들 대부분이 그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1990년대를 전후로 등장했던 대형 파두 가수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파두 음악계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와 즉각적으로 비교가 되어 왔다. 또한 그녀의 인생을 담은 ‘아말리아’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상연되는 등 세상을 떠난 지금도 포르투갈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파두의 여신’으로 자리하고 있다.

‘아말리아 호드리게스’라는 불세출의 파디스타에 의해 세계적인 음악으로 깊이를 더해 온 파두는 그녀의 후계자로 불리는 ‘돌스 뽀뜨스(Dulce Pontes)’, ‘크리스티나 브랑쿠(Cristina Branco)’와 같은 세계적인 가수들에 의해 더욱 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06년 내한 공연을 다녀갔던 파두 가수 ‘마리자(Mariza)’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재래(再來)’라는 찬사를 받으며, 유럽에서 현역 최고의 파두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파두에 대한 남은 이야기들과 함께 ‘아말리아 호드리게스’ 이후에 등장한 주목할 만한 파두 아티스트들을 만나본다.



# 강한 어머니 케테 콜비츠,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를 이끈다

채 경 혜 |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 석판화, 1942

독일 판화가인 케테 콜비츠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자세가 허물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콜비츠는 진보적인 여류 판화가로 20세기에 판화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 저변으로 침투시킨 작가로 민중의 증언자, 죽음을 영접하는 여인 등으로 불려진다. 아마도 콜비츠의 작품을 보았다면 그 이미지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동안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여 시달리는 민중의 모습을 그림 속에 담아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길을 찾았다. 그러나 사회고발이나 선동이 아니라 '가난의 추방', '질병 퇴치'의 필연성, '사회개혁'의 불가피성을 일깨우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기아, 전쟁,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와 비탄에 빠진 어머니는 그녀 작품의 일관된 주제가 되었고, 강인한 모성애는 보편적인 인류애로 승화시켜 예술정신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케테 콜비츠(1867-1945)는 프러시아의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자유주의 전통의 가정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 베를린에서 미술수업을 받았다.

처음 그녀는 유화작업을 하였으나 17세 때 베를린여자예술학교에서 칼 스타우퍼 베른교수를 통해 동판부식법을 배우고 클링거의 상징주의 판화를 보면서 작품세계가 바뀌게 된다. 그녀는 판화가 복수제작이 가능하고 대중과의 소통성이 강하다는 점에 특히 매료되었다. 또한 색채에 대해서는 심미적인 유희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정과 회색, 흰색으로 표현하는 판화야말로 인간의 고뇌와 어둠을 표출해내는 데 가장 적합한 장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느낌은 영감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습작과 실험과정을 거치는 동안 저절로 형성된 것이다.

1891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의사인 칼 콜비츠와 결혼하여 베를린의 북부지역에서 남편의 무료진료를 도우면서 주로 동판화 작업을 하였다.

20세기 초반부터 그녀의 작품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그녀에 대한 논평 또한 이어졌는데 당시 화폐를 소지할 수 없었던 독일 망명객들 중 일부는 콜비츠의 판화를 반출하여 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빵을〉 석판, 1924



1893년 2월, <직조공들>이라는 연극에 자극을 받아 4년간의 작업 끝에 발표한 첫 번째 연작 <직조공의 봉기>는 실제 실레지엔 지방의 직조공들의 봉기를 기초로 한 것이다. 빈곤, 죽음, 회의, 거리행진, 소요, 결말 등 총 6점으로 구성된 이 연작은 직조공들의 빈곤, 죽음을 당한 자와 남겨진 자의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였으며, 베를린 전시에서 독특한 사실주의적 형식으로 호평을 받았다.

1903년부터 1908년까지 작업한 연작 <농민전쟁>은 16세기 초 독일농민전쟁을 소재로 한, 7장으로 구성된 동판화로 이 시기는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계급투쟁이 격렬한 때였다.

1914년 발발한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지원병으로 군에 간 둘째 아들이 전사하는 아픔을 겪고, 1919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프로이센 예술아카데미의 회원이자 교수로 임명된다. 1922년부터 1925년까지 7점의 목판화 연작 <전쟁>을 탄생시켜 아들을 잃은 모정의 고통을 이겨 냈으며 대가(大家)다운 기법으로 불후의 유산을 남겼다.

1933년 히틀러 집권으로 교수 자격 박탈과 함께 전시가 금지당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한편 '퇴폐미술전'에 작품이 전시되어 반민족적, 반예술적인 낙오자로 질타 당했다. 그러나 그녀는 게슈타포의 심문, 강제수용소로 이송될지도 모르는 공포의 시기에 죽음의 경외에 관한 많은 작품을 남겼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손자 페터가 러시아 전선에서 전사하자 비통함 속에서 희망을 잊지 말자는 괴테의 글에서 따온 제목을 붙인 마지막 석판화 <씨앗을 짓이겨서는 안 된다>를 완성한다.

그녀는 외쳤다. "우리가 전쟁에 내보내려고 아이를 낳은 건 아니다." 빈곤과 투쟁의 쳇바퀴 속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꼭 껴안고 있는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한 휴머니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늘이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 땅 위에 또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글귀가 실린 <전쟁은 이제 그만!>은 지금도 세인의 심금을 울리는 반전 포스터로 유명하다. 1943년 노르트하우젠으로 강제 이주되고 1945년 종전을 불과 2주 남겨둔 봄날, 모리츠부르크에서 77세를 일기로 사망한 그녀의 유해는 종전 후 베를린으로 이장되었다.

오늘날 그녀를 위대한 예술가중 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실천하는 예술가였다는 점에 있다. 그녀가 개척한 '현실예술' 양식은 중국에서 신흥목판화 운동을 일으켰으며 루쉰(魯迅)은 콜비츠 작품집을 발간하고 평론을 쓰기도 했다.

특정한 시대 그녀가 인간으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겪었던 것들을 형상화했다는 의미에서 그녀의 작품은 자전적이며 거기에는 그녀의 예술과 삶이 녹녹히 젖어 오늘날까지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직조공의 행진 #4> 에칭, 샌드페퍼 애쿼틴트, 1897



<죽은 아이를 안은 여인> 에칭, 1903





i 아이 Gallery

●

어린이를 위한 색다른 문화공간이 부산에 탄생했다.  
'i 아이 갤러리',  
이름처럼 어린이와 미술을 하나로 엮는 어린이를 위한 열린 미술공간이다.

●





## 어린이를 위한 열린 미술공간

# i아이 Gallery

“피카소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리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 그림은 왜 수준 이하의 작품으로 대접받는지 답답했지요. i아이갤러리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전시공간을 마련해주자는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앞으로 전시공간으로서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창작과 체험활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아트 커뮤니티 공간으로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i아이갤러리는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화가 이선재 씨가 1년간의 준비끝에 선보인 공간이다.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지도해오면서 평소 아동미술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2007년부터 (사)문화예술인적자원개발센터 팀장으로 있으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상에 고민해 왔다. 그가 활동하고 있는 (사)문화예술인적자원개발센터는 지난해 6월 새로운 형태의 음악, 미술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지적, 감성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창의력을 키우는 학리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를 개설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난 3월 1일 광안리 바닷가와 가까운 지하철 2호선 광안역 근처에 문을 연 i아이갤러리는 개관기념전으로 ‘콩 심은데 콩 날까?’를 가졌다. 현재 활동하는 작가와 그 자녀들의 작품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전시회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직접 개관전을 기획했던 이선재 씨도 그의 초등학교 아들인 정원리와 나란히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작가들의 잔치로만 끝나기 쉬운 일반 전시와 달리 이런 기획전은 가족 뿐 아니라 친척, 친구들까지 편하게 전시장으로 이끌면서 평소 높게만 느껴졌던 갤러리의 문턱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전시공간과 교육환경을 제공하면서 그 아이들의 작품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는게 이선재 씨의 생각이다. 어린이를 위한 전시공간인 만큼 2개월마다 새로운 주제로 작가와 어린이들

이 함께 참여하는 기획전과 어린이 개인전 및 단체공모전을 가질 계획이다. 전시를 원하는 어린이들이나 기성 작가들의 경우 간단한 포토폴리오 심사를 거치면 대관도 가능하다.

어린이들 뿐 아니라 일반 작가들에게도 다양한 전시기회를 주고 싶다는 이선재 씨는 두 번째 기획전으로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김동환, 김선영, 류형욱, 이선재 등 인물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화가 4인의 작품전 ‘눈을 뜨다’ 전을 갖는다.

이 외에도 i아이갤러리에서는 전시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피노키오를 만나다’가 3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한차례 진행된다. 나무를 이용한 목공예 수업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피노키오를 만나다’는 작고 큰 나무 조각에 감성과 생명을 불어넣어 어린이들이 조형적인 미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5월 13일부터는 어린이들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책을 제작해볼 수 있는 북아트 체험프로그램 ‘나는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진행한다.



- 개관/오전 10시~오후 7시
- 문의/i아이갤러리(755-0233)



#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 배워봐요” 바다무대 합창단



뮤지컬 ‘캣츠’를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극중 주인공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넘버 ‘메모리’는 모두에게 친숙하다. 노래와 춤으로 극을 이끌어어나가는 뮤지컬에 있어 이렇듯 잘 만들어진 뮤지컬 넘버 한 곡은 그 작품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최상의 선물이다.

동호회 ‘바다무대 합창단’은 이런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를 감상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뮤지컬 넘버를 직접 배워보는 용기있는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부산 최대의 관극동호회인 ‘바다무대’ 소모임에서 출발한 만큼 활동하고 있는 회원 20여명도 대부분 바다무대 회원들이다. 즐거운 관극활동을 위해 모인 이들에게 뮤지컬 넘버 배우기는 ‘뮤지컬을 보다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난 2004년 처음 결성될 당시만 하더라도 ‘바다무대 합창단’은 말 그대로 장르 불문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회원들로 모인 ‘합창단’이었다. 그러다가 1년의 휴식기를 지내고 지난해 9월 다시 의욕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면서 장르를 ‘뮤지컬 넘버’로 한정시켰다.

‘바다무대 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서면지하철 역에 위치한 경신아트홀에서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고 국내에서 상연되는 뮤지컬 중에서 유명하거나 또는 회원들이 불려보고 싶은 넘버를

선곡해 배워본다. 선곡된 곡은 정기모임에 앞서 ‘바다무대’ 카페에 사전 공지해 회원들에게 곡에 대한 이해를 미리 돕는다.

매주 정기모임에는 1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바다무대 회원들이지만 간혹 알음알음 찾아오는 시민들도 있다. 뮤지컬과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바다무대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대환영이다.

“아무래도 주요 곡을 알고 뮤지컬을 관람하게 되면 보다 더 재미있게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뮤지컬 공연의 상연 시기에 맞춰 곡을 선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배정환 씨. ‘바다무대 합창단’에서 노래 지도를 맡고 있는 배정환 씨는 크게 국내 창작뮤지컬과 유명 뮤지컬 넘버 중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곡을 정한다.

그동안 정기모임을 통해 배워본 뮤지컬 넘버도 ‘Someone like You(지킬박사와 하이드)’, ‘Memory(캣츠)’, ‘On My own(레미제라블)’, ‘춤춰요 에스메랄다(노틀담 드 파리)’ 등 유명 뮤지컬에서부터 ‘사랑(사랑은 비를 타고)’, ‘이젠 정말 만나야 할 때(김종욱찾기)’, ‘담배(싱글즈)’ 등 창작뮤지컬까지 다양하다.

합창단이 결성된 초창기부터 꾸준히 회원으로 활동해온 강미숙 씨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배울 수 있어 무엇보다 좋다. 그는 매주 한 곡의 노래를 배울 때마다 해냈다는 뿌듯한 성취감을 느낀다.

관극마니아 김완길 씨. 뮤지컬에 있어 무엇보다 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는 뮤지컬 넘버를 배우면서 더 재미있게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남녀회원이 어우러져 노래를 부르다 보니 간혹 음역이 맞지 않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음치라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동호회 분위기는 ‘바다무대 합창단’이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문의/바다무대합창단 배정환(632-0176, 010-5051-3885, [cafe.daum.net/pfree7](http://cafe.daum.net/pfree7))



# 고음악 연주의 기수들(Authentic Music) 2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 크리스토퍼 호그우드(Christopher Hogwood, 지휘자)

1973년, The Academy of Ancient Music(AAM)을 창설한 이래 호그우드는 '작곡가의 오리지널 음향세계를 재현한다'는 철학을 견지해 온 고음악연주의 대표적인 인물로 고악기를 복원하는 데도 대단한 열정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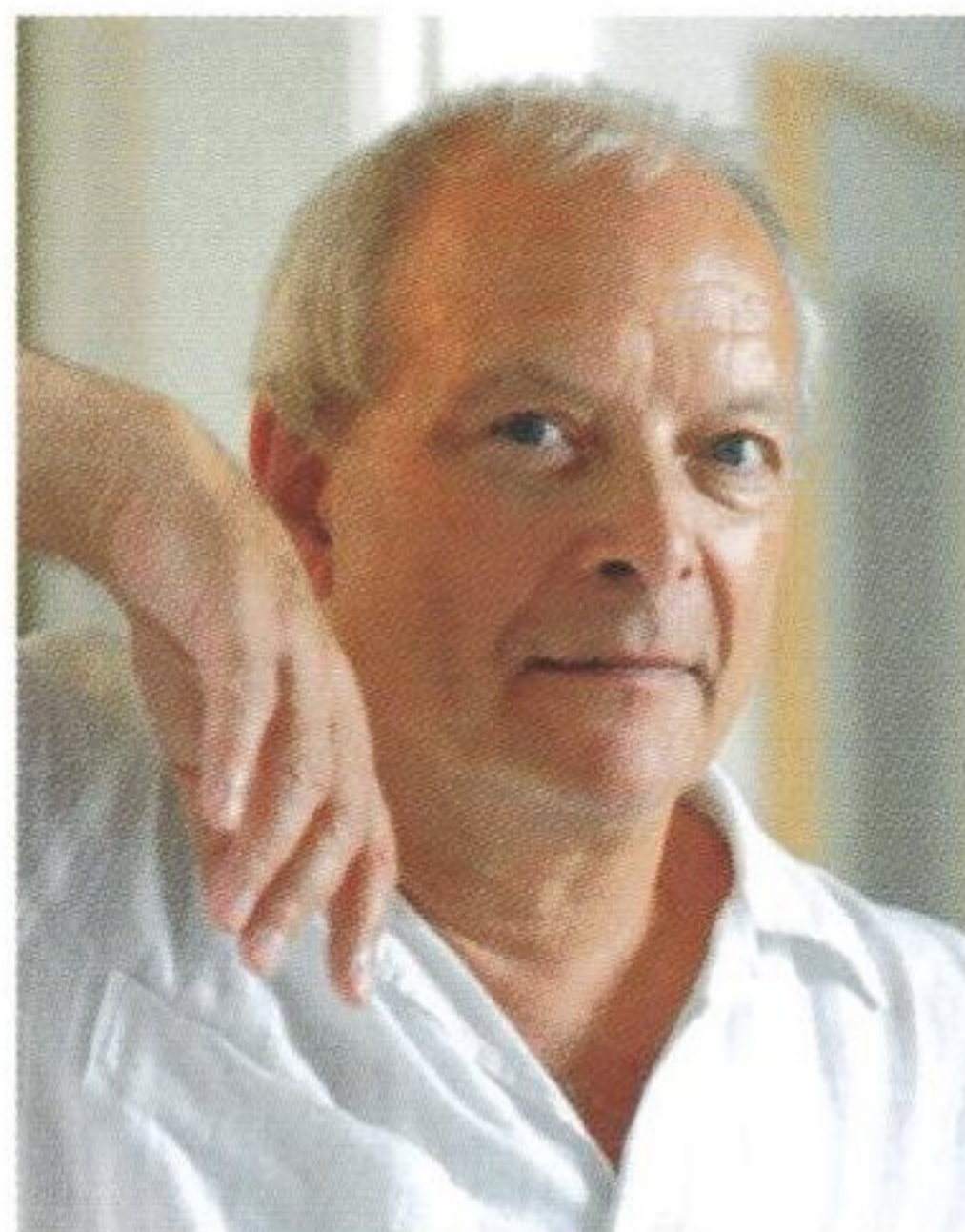
AAM의 예술감독 이외에 밀라노 베르디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지휘자, 바젤 실내 오케스트라의 수석객원지휘자, 그라나다 오케스트라, 보스턴의 헨델과 하이든 협회의 객원지휘자를 겸하고 있다. 2004년에는 홍콩 심포니에타, 도쿄 필, 갈리치아 레알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괴테보르크 심포니,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뮌헨 바흐 콜레기움,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협회, 바르셀로나 오케스트라, 쾰른 바이에른 방송과 서부독일 방송 교향악단 등을 객원 지휘했다.

호그우드와 AAM은 L' Oiseau-Lyre 레이블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종의 음반을 발표하고 있으며, 고악기를 사용해서 모

차르트의 교향곡 전곡 음반을 사상 최초로 발매했다.

호그우드는 음악학자로서 저서도 발표하고 있다. <하이든, 모차르트, 헨델의 전기적 연구> <트리오 소나타의 역사> <16세기 영국의 건반악기 작품과 오케스트라 음악의 다양한 판본들> 같은 저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일본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또 캠브리지 대학교의 명예음악교수, 런던 왕립음악원 방문 교수(Visiting Professor) 등의 직함도 갖고 있다.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 The Academy of Ancient Music

1973년,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고음악 연주를 하기 위해 세운 합주단으로, 바로크 음악과 고전주의 음악 연주에 정평이 나 있다. 이들은 원전연주를 고수하며 악기 또한 고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헨리 퍼셀(Henry Purcell)의 트리오 소나타를 연주한 불과 4명의 연주자로부터 시작되어, 180명에 이르는 관현악단과 합창단으로 성장했고, 하이든이 빈의 부르크테아터(Burgtheater)에서 초연한 <천지창조>를 재현하고,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당시 관현악단의 규모에 맞추어 원곡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6년부터 폴 구드윈(Paul Goodwin)이 부지휘자, 앤드루 맨즈(Andrew Manze)가 부감독 겸 악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맨즈 이후 음반은 주로 고음악 전문 레이블 아르모니아 문디(harmonia mundi)에서 출판해 오고 있다.





### 부산시립극단 제 31회 정기공연 '한 여름 밤의 꿈'

**대극장** 4월 4일-5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최초의 낭만 희극으로 마련하는 부산시립극단 2008년 첫 정기공연 '한 여름 밤의 꿈'.

제목에서 암시해 주듯 한 여름 밤 숲속에서 요정의 실수와 장난으로 인해 두 쌍의 젊은 연인들의 얽히고 설킨 사랑을

내용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이번 작품은 젊은이들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 요정들의 용서와 화해, 인간의 만남, 현실과 꿈의 만남으로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를 그려낸다.

온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정통극으로 관객과 만나게 될 '한 여름 밤의 꿈'은 무대와 영상의 이색 만남을 통해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 원작/W. 셰익스피어
- 역자/이정래
- 연출/손기룡(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 안무/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출연/박찬영, 임해련, 이혁우, 유성주, 김은희, 박정민, 엄준필, 이현주, 이은주, 이돈희, 황창기, 염지선, 박민철, 손윤혜, 윤유경, 신동훈, 백기성, 이환희, 제정경
- 특별출연/정진희, 김주령, 권봉정, 이정인, 김진영(부산시립무용단 단원)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6136~8)



### 국제신문 창간 61주년 기념 특별콘서트 2008 이 무지치 실내악단 내한공연

**대극장** 4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1952년 창단 이래, 최고의 실내악단으로 명성을 떨쳐온 이 무지치(I MUSICI) 실내악단 부산연주회.

이탈리아어로 음악가들(The Musicians)을 의미하는 '이 무지치'는 이탈리아의 명문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12명의 음악인들로 창단되었다. 이무지치는 특유의 아름답

고 쾌활한 기질과 탁월한 연주력, 완벽한 앙상블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휘자 없는 리더(콘서트마스터) 체제로, 곡 해석 및 연주, 의사결정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단원간의 철저한 합의를 중시하는 이 무지치는 확대해석을 피하고, 바로크 음악의 원래의 표정을 되살린다는 창단 정신 아래 바로크의 사도로서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 오고 있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세레나데 제13번 사장조 KV.525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룻시니/현악 4중주 제1번 사장조

레스피기/옛 아리아와 무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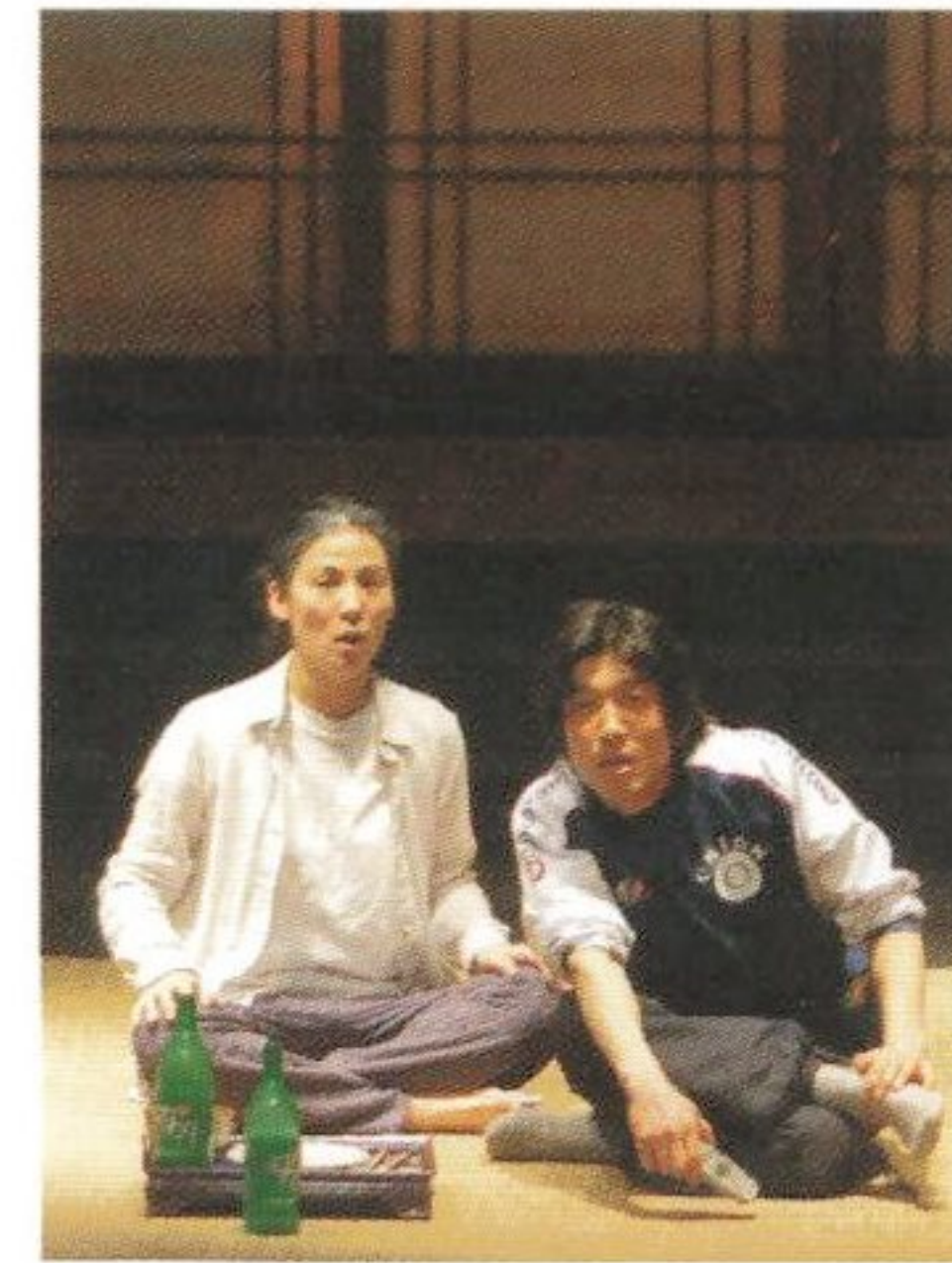
파가니니/베네치아의 축제(바이올린/안토니오 안셀미)

비발디/사계(바이올린/안토니오 살바토레)

■ 관람료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 문 의 국제신문(500-5222), 요요기획(622-5744)



### 2008 제26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극단 자유바다 '어머니'

4월 1일-6일 화-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4:30 소극장

야구 경기를 보며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어머니, 질곡의 세월이었지만 웃으며 즐겁게 삶을 돌아보

며 인고의 세월을 보낸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다.

- 작, 연출/이동희
- 출연/이동희, 신영주, 강혜란, 오영섭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예매시 5,000원 할인)
- 문 의 극단 자유바다(622-3572)

### 2008 제2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누리에 '사이에서'

4월 2일-3일 수요일 오후 7:30  
목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자신에게서 불거져 나오는 분노, 원망, 세상에 혼자 남겨진 막막함과 설움을 묵묵히 제 안에 눌러 담으며 살아왔던 12살 소년 창이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을 그린 작품.

- 작/권영주 · 연출/강성우
- 출연/유상훈, 진선미, 최성희, 김학준, 김태훈, 최현경, 강봉금, 황정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예매시 5,000원 할인)
- 문 의 극단 누리에(621-3573)

### 2008 제 2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연구집단 시나위 '내가방'

4월 5일-6일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무법지대의 사회, 30대 후반의 실직가장과 10대 후반의 사진작가 지망생이 2인조 폐강도를 결의하게 된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위험한 도시에서 2인조 폐강도로써 승승장구 해 나가는 두 사람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고민을 함께 나누어본다.

- 작, 연출/강태욱
- 출연/박상규, 김혜정, 오정국, 배진만, 김현진, 서성원, 신원준, 박근태,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예매시 5,000원 할인)
- 문 의 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 제 2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앵무야 앵무야 홀로 앵무야'

4월 8일-9일 화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8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4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새봄과 함께 웅장한 클래식 향연을 선사할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8회 정기연주회.

2008년 첫 연주일정을 시작하는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와 로알 스톡홀름 필하모닉과의 협연으로 슈니케 협주곡 제 6번 음반을 발매한 바 있는 러시아 바이올리

니스트 사샤 로즈데스트벤스키가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협연자 사샤 로즈데스트벤스키는 러시아의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예후디 메뉴인으로 부터 '그 세대 중에서 가장 재능있고 정련된 바이올리니스트' 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 사샤 로즈데스트벤스키는 현대음악에 감성과 인간애를 불러 넣은 작곡가 슈니케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을 국내 초연으로 들려준다. 이곡은 1984년 9월 11일, 베를린 필과 기돈 크레머의 연주로 초연된 바 있다.

#### 프로그램

글린카/ '아라곤의 호타' 에 의한 화려한 카프리치오(스페인 서곡 제 1번)

슈니케/바이올린 협주곡 제 4번

드보르작/교향곡 제 8번 사장조 작품 88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사샤 로즈데스트벤스키(바이올리니스트)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합창단 제 125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4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바흐의 여섯 개의 모테트 중, 가장 유명한 곡인 '예수, 나의 기쁨 (Jesu, Meine Freude, BWV 277)' 과 합창음악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무반주 합창곡들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연주되는 'Jesu, meine Freude(BWV 277)' 는 바흐가 작곡한 모테트 중 가장 긴 곡으로, 짜여진 곡의 구조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유명하다. 이 외에도 현대작곡가들이 작곡하거나 편곡한 아름답고 흥겨운 8성부의 합창곡과 6명으로 구성된 아카펠라 그룹의 연주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바흐/예수, 나의 기쁨이여

무반주(아카펠라) 세상/슬픔의 성모(V.Barkauskas), 땅위에 평화 있으리라(Arr. D.Johnson), 바빌론 강가에서 (F.Pooler)

양상블1/If I Fell(Arr. B.Chilcott), Ob-la-di, Ob-la-da(Arr. B.Lves)

양상블2/Kiss the Girl('인어공주' 중), Sh-Boom(Life could be a Dream, Arr. A.Raugh)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특별출연/하이든양상블
- 반주/이승윤, 이경미
- 양상블/남순천, 최선희(이상 소프라노), 박진희(알토), 류무룡(테너), 김창돈(바라톤), 구명금(바라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남녀가 우산을 들고 뒤 돌아 서있다. 남자는 여자를 혼자 놔 둔채, 어디론가 나간다. 여자는 무대에 홀로 우산을 받쳐 들고 서 있다. 다른 쪽에서 민이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 둘은 마주친다. 여자는 민이에게 우산을 건네준다. 그리고 그녀는 민이가 나온 쪽으로 나가버린다. 민이는 할머니를 찾기 시작하는데...

· 작, 연출/박용현

· 출연/박지현, 정애경, 양효윤, 강원재, 김현주, 류혜린, 염기덕, 김아람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예매시 5,000원 할인)  
문 의 부산연극제작소 동넵(751-0858)



### 제 26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맥 '환생신화'

4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4월 12일 토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치매 걸린 노모와 함께 살아가는 양생이 가족의 안타깝고 눈물 짙은 가족사를 엮은 이 작품은 아버지 제삿날 문서를 둘러싼 형제간의 싸움을 통해

우리네 가족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작품이다.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환생하여 형제들을 심판하는 웃기고 슬픈 이야기.

· 작, 연출/이정남

· 출연/심미란, 전지숙, 허정현, 권은하, 정중호, 김창주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예매시 5,000원 할인)

문 의 극단 맥(645-2110 )



### 제 26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극단 에저또 '육남매'

4월 11일-13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4:30 소극장

아버지는 돈벌러 집을 떠나고 남매를 남겨두고 숨을 거둔 어머니. 하루라도 사건이 없는 날이 없는 남매들의 집. 가수가 꿈인 일식이, 착한 천식이, 대갈왕자 먹보 삼식이, 착한 말순이 그리고 막내 끝식이 까지 다들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기 위해 나간다.

소년소녀 가장이 된 이순이가 오빠와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다.

· 작, 연출/최재민

· 출연/이지훈, 손미나, 구윤희, 신영재, 김현자, 김상호, 정재훈, 김지연, 강예진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예매시 5,000원 할인)

문 의 에저또(852-9161)





## 그랜드오페라단의 창단 12주년 기념 안지환과 안치환 두 남자의 음악 이야기

**대극장** 4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신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바리톤 안지환과 대중 가수 안치환의 특별한 만남 두남자의 음악이야기 '사랑과 자유'.

클래식의 격조와 대중가요의 친숙함이 결합된 크로스오버 형식의 무대로 삶, 사랑, 자유를 주제로 한 예술가곡과

아리아, 대중가요 등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슈베르트/봄꿈

윤용하/보리밭

앤드류 로이 웹버/나를 생각해 줘요(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김범수/내가 만일

안치환/담쟁이, 당당하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풍경 달다

모차르트/그대여 창가로 나와 주오(오페라 '돈조반니' 중에서) 등 수곡

- 특별출연/박현정(소프라노), 김하림(피아니스트)
- 합창/부산의사부부합창단, 그랜드소년소녀합창단
- 연출 및 음악감독/백현주

■ 관람료 VIP석 70,000원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할인)

■ 문 의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 유콘서트스물세번째 '이자람의 판소리 이야기' - 젊은 국악과의 만남

**중극장**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1:00

1984년 9세 때 내 이름은 예술이로 데뷔,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신세대 소리꾼 이자람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자람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국악뮤지컬 창작집단 타루 대표로 활동했다. 1997년 4시간에 걸쳐 최연소로 '심청가'를 완창, 1999년 8

시간에 걸쳐 '춘향가'를 완창해 화제를 모은 이자람이 판소리 특유의 풍자와 묘사 등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새로운 감각의 판소리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이경섭/멋으로 사는 세상, 박타령

해금 연주/Early in the morning, Quizas Quizas Quizas

김영동/조각배

25현 가야금/태양은 가득히, La Cumparsita

이자람의 판소리 이야기/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중 눈대목

- 연주/부산국악합창오케스트라(지휘/홍희철 · 부산청소년국악관현단 지휘자, 부산대학교 강사)
- 특별출연/이자람
- 교수/조정래
- 협연/이인경, 김소현, 백민경, 유영호, 박고운(이상 해금), 이남연, 최주실, 황정원(이상 25현 가야금)

■ 관람료 균일 15,000원(국제신문 독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국제신문(500-5222), 예술기획(0505-700-9798)



## 제 26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춤소리예술단 '판'

4월 13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춤소리 예술단과 이바디 예술단이 함께 벌이는 신명난 판으로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변해가는 시대에 변해가는 전통공연 '판'. 무용협회 회원들과 문화재 전수 조교들이 특별출연한다.

### 프로그램

살푸리(춤/김정원)

진주교방굿거리(춤/춤소리예술단)

동래학춤(춤/이성훈 · 부산시지정문화재 제3호 전수조교)

태평무(춤/김정원 외 무용협회 회원)

소고춤(출연/춤소리예술단) 등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예매시 5,000원 할인)  
문 의 춤소리 예술단(636-8071)



##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제 8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4월 14일 월 오후 7:30 대극장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자는데 뜻을 모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향 단원들과 그 외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주자들 100여명으로 구성된 United Korean Orchestra(U.K.O)는 2006년 11월 9일 시민회관 연주회를 시작으로 2007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주회, 2008년 1월의 제주 초청연주회, 6회의 정기연주 등을 펼쳐왔다.

이번 연주회는 제주도립교향악단 지휘자로 있는 이동호가 지휘한다.

### 프로그램

슈트라우스/왈츠 '봄의 소리' 작품 410

모차르트/교향곡 제25번 사단조 작품 183 중 제1악장

비외탕/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그레트리' 가단조 작품 37 중 제1악장 시벨리우스/교향시 '핀란드어' 작품 26 등 수곡

· 지휘/이동호

· 바이올린/김민경

· 테너/이은민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문 의 UKO(731-4470, 011-589-3111)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39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4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4월 17일, 예술의 전당 2008 교향악 축제에 참가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서울 연주에 앞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바로크시대 작곡가 헨델, 고전시대 작곡가 베토벤, 낭만시대 작곡가 브람스 등 다양한 시대의 음악으로 클래식향연을 선사한다.

포르투갈 Porto 콩쿠르 2위, 이탈리아 Busoni 국제 콩쿠르 4위, 칠레 Luis Sigall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등을 수상하고 대범함과 섬세함을 겸비한 피아니스트로 정평이 나 있는 김정은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이날 무대에서 김정은은 초연 당시 '오케스트라의 협연 속에 실려 하늘로 날아오르는 피아노 선율이 천상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길을 보는 듯 하다'며 격찬 받은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4번을 연주한다. 2부를 장식하는 브람스 교향곡 제4번은 브람스가 52세에 쓴 작품으로 노년기에 이른 브람스의 심경의 깊이가 나타나 있는 곡이다.

### 프로그램

- 헨델/ '왕궁의 불꽃놀이' 작품 351
-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 4번 사장조 작품 58
- 브람스/교향곡 제 4번 마단조 작품 98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김정은(피아니스트)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한국오페라 60주년 기념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팔리아치'

**대극장** 4월 18일-20일 금-일요일 오후 7:30

부산오페라연구소가 한국 오페라 60주년을 기념하여 선보이는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팔리아치'. 사랑과 배신, 질투와 죽음의 비극적 사랑이야기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마스카니의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레온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는 다른 오페라와는

달리 서민들이 주인공이다. 일반 대중들에게 어렵기 만한 오페라장르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의 단막 '베르즈모 오페라'를 통해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다양한 오페라를 선보이며, 섬세한 분석과 풍부한 표현을 통해 탄탄한 실력을 선보이고 있는 윤상운교수가 지휘봉을 잡고 부산 출신 국내 최정상급의 연출가 김성경이 원작의 해석을 그대로 살린 무대를 통해 정통 오페라의 묘미를 선보인다.

- 제작총감독/임재우
- 예술감독/윤상운
- 음악코치/홍지혜
- 출연/허미경, 구현진, 윤지영, 김유섬, 이윤정, 장은녕(이상 소프라노), 강학운, 김경여, 김지호, 김경, 박찬, 양승엽(이상 테너) 하병욱, 김상호, 고정현, 채범석, 이종훈, 강경원, 김정대(이상 바리톤)

- 관람료 VIP석 130,000원 · R석 100,000원 · S석 70,000원 ·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 문 의 ISOLIST(017-568-6056)



## 테너 김화정 독창회

4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과 파르마 오프레오 아카데미아 성악과와 오페라 연기코스를 졸업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화정의 독창회.

김화정은 유학중 이태리 Racconigi 국제성악콩쿠르 1위, Lario in Musica 성악콩쿠르 4위, F.Schubert 국제성악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 프로그램

- Malia, April, Nella Fantasia, Amore Perduto, 편지, 임진강, L'orgia La Danza, Because, Granadinas, No Puede ser
- 반주/이소영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화정(011-9208-9752)

##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KBS교향악단 신인음악회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

4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1956년 12월 20일 창단연주회를 가진 이래, 지금까지 수준 높은 연주회를 들려준 KBS교향악단 부산연주회.

KBS교향악단은 1979년 미국 전역 순회연주를 비롯하여 동남아 5개국 순회연주, 일본 6개도시 순회연주, NHK초청 일본 4개 도시 순회연주, 일본 기타큐슈 국제음악제, 히로시마교향악단 합동공연, UN 50주년 및 광복 50주년 기념 뉴욕 UN총회장 연주회 등을 가진 바 있다.

- 지휘/최승한
- 협연/조현광, 김경호(이상 테너), 이윤정, 양제경(이상 소프라노), 김기경, 김준(이상 피아노), 김지윤, 전재성(이상 바이올린), 김소연, 하세연(이상 첼로)
- 관람료 초대(초대권 배부 : KBS부산방송총국, 한국전력부산지사)
- 문 의 KBS 시청자사업(02-781-2230)
- 한국전력공사 문화공헌팀(02-3456-3143)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제25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4월 17일-19일 목-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의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부산 피아노연주가클럽이 들려주는 제 25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피아니스트 박정현의 독주회를 시작으로 4개의 발라드와 4개의 스케르쵸를 연주하는 '쇼팽의 밤', 김혜린, 이명숙, 이윤정, 최은주, 김은희 등이 연주하는 솔로와 듀오의 밤이 마련된다.





## 2008 숲속 발레 '아기곰 발레리노'

**대극장** | 4월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3:00  
6:00 28일 월요일 오전 10:30 11:30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창작발레를 선보여온 김옥련발레단이 2008년 새롭게 선보이는 '아기곰 발레리노'.

도깨비들에게 이끌려 숲속 발레축제에 참가한 국립발레학교의 가난한 학생 현수가 숲속 친구와 도깨비들의 예술혼과 열정으로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아기곰 발레리노'의

꿈을 꾸다. 2002년 시작된 숲속발레는 2007년 지하철, 체육관 등 찾아가는 발레 공연으로 41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연이다.

작품

- 1장-목신(도깨비)과의 춤의 대화
- 2장-숲속의 마을, 꿈속의 마을
- 3장-햇살이 춤, 나무들의 춤, 풀들의 춤
- 4장-숲속친구들의 꿈의 축제
- 5장-숲속발레왕자(발레리노) 탄생

- 대본/송유미
- 연출, 안무/김옥련
- 음악/전현미
- 출연/김승태, 이동용, 정두순, 정수미, 최소정, 이세진, 강수빈, 최연순, 백현정 외 15명

■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김옥련무용단(626-9486)



■ 제 1일 17일(목)  
박정현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슈만/카니발 작품 9  
베토벤/소나타 다단조 작품 111  
리스트/헝가리안 랩소디 제 2번 올림  
다단조

■ 제 2일 18일(금) '쇼팽의 밤'  
-4개의 발라드와 4개의 스케르췌

**프로그램**

쇼팽/발라드 제 1번 사단조 작품 23, 제 2번 바장조 작품 38, 발라드 제 3번 내림 가장조 작품 47, 발라드 제 4번 바단조 작품 52  
쇼팽/스케르췌 제1번 나단조 작품 20, 제 2번 내림 나장조 작품 31, 제 3번 올림다장조 작품 39, 제 4번 마장조 작품 54

· 출연/김인미, 박윤정, 신문정, 서민기, 윤시내, 김경출, 신애정, 노경원

■ 제 3일 19일(토) 솔로와 듀오의 밤

**프로그램**

멘델스존/프렐류드와 푸가 작품 35 제 1번

리스트/메피스토 왈츠 제 1번

라벨/쿠프랭의 무덤

모차르트/소나타 다장조(4hands) K.521 등 수곡

· 출연/김혜린, 이명숙, 이윤정, 최은주&김은희, 김무성&박선미, 정희경&김선화, 육순진&박정운&정안선&김현정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조윤선(017-7797-0035)



## 제22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대극장** | 4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 22회 정기연주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 국제신문 유콘서트, 청소년 교과서 음악회, 오페라 무대 등을 통해 음

악애호가들과 만나왔다.

대구, 울산, 포항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박성완 교수가 지휘한다.

**프로그램**

피젯티/소포클레스의 '에디프스 왕' 에 의한 3개의 전주곡

베토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61

정수란/관현악을 위한 'Response' (2008)

스트라빈스키/무용 모음곡 '불새'

- 지휘/박성완
- 음악감독/임병원
- 협연/김복수(KBS교향악단 제1악장)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경성대학교(620-4918)



## 제 7회 정승원 작곡발표회 성가합창곡집 출판기념 '칸타타 도미니'

4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고신대학교, 독일 카셀시립음대, 독일 데트몰드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 창작코랄리 부회장, 향사회 이사, 신라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작품을 발표해 온 작곡가 정승원의

일곱번째 작곡 발표회.

성가합창곡집 출판을 기념하는 이번 무대는 김강규가 지휘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연주로 '칸타타 도미니' 초연무대를 갖는다.

**프로그램**

정승원/칸타타 도미니-호산나 거룩하신 주, 별빛 찬란한 밤, 영원의 기도, 첫 새벽, 평화의 주

성가곡/밤의 기도, 어둡고 외로운 들판에서 등 수곡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 솔로/소프라노 서경숙, 테너 광성섭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 의 정승원(011-554-1657)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0회 정기연주회

4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준수한 외모와 무대 매너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 첼리스트 송영훈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0회 정기연주회.

슬라브적인 열정과 아메리카 민요가 가지는 애수 어린 서정성을 갖춘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과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철학적 관조와 처연한 통곡이 잘 어우러진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5번을 들려준다.

부산연주회에 앞서 4월 23일 영·호남의 5개 교향악단이 펼치는 창원 성산교향악 축제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주한다.

### 프로그램

-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 5번 마단조 작품 64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송영훈(첼리스트)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이태리음악연구회 제27회 정기연주회

### 한국 오페라 60년사 오페라 이야기

4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지난해 창단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친 이태리음악연구회가 들려주는 정기연주회. 한국 오페라 60주년을 기념하여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연다.

### 프로그램

- 베르디/오페라 '리골렛토' 중 '그리운 이름'
- 롯시니/오페라 '오델로' 중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대 음성'
- 벨리니/오페라 '노르마' 중 '보세요, 오 노르마' 등 수곡
- 출연/민상순, 이은미, 구현진, 박연경(이상 소프라노), 이지영, 성미진(이상 메조 소프라노), 장원상, 정거해(이상 테너), 김길수(바리톤) 김태형(베이스), 차미소란, 안선애, 정미선, 최성근, 전은영, 윤민하(이상 피아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박찬(010-7315-7352)

##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제 16회 정기연주회

4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소년의 집 관현악단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로 성장시킨 안유경 지휘자를 중심으로 1992년 창단된 부산 카머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송필석/현악합주 '안개비 그날이 오면'
  - 치마로사/오보에협주곡
  - 비탈리/사콘느
  - 드보르작/현악합주 세레나데
  - 지휘/안유경
  - 협연/권성은(오보에), 원희선(바이올린)
- 관람료 균일 20,000원(100명 선착순 초대)  
문의 정성희(011-9511-3768)

## 2008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

4월 25일 금요일 오후 1:00 소극장

시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년 시(詩)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재)재능문화가 마련하는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

올해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 나누어 전국시낭송경연대회 예선을 치른다.

· 경연부문: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

관람료 무료(참가비 무료)

문의 재능문화 사무국(02-3670-0116, 0219)



## 아주 특별한 나들이

26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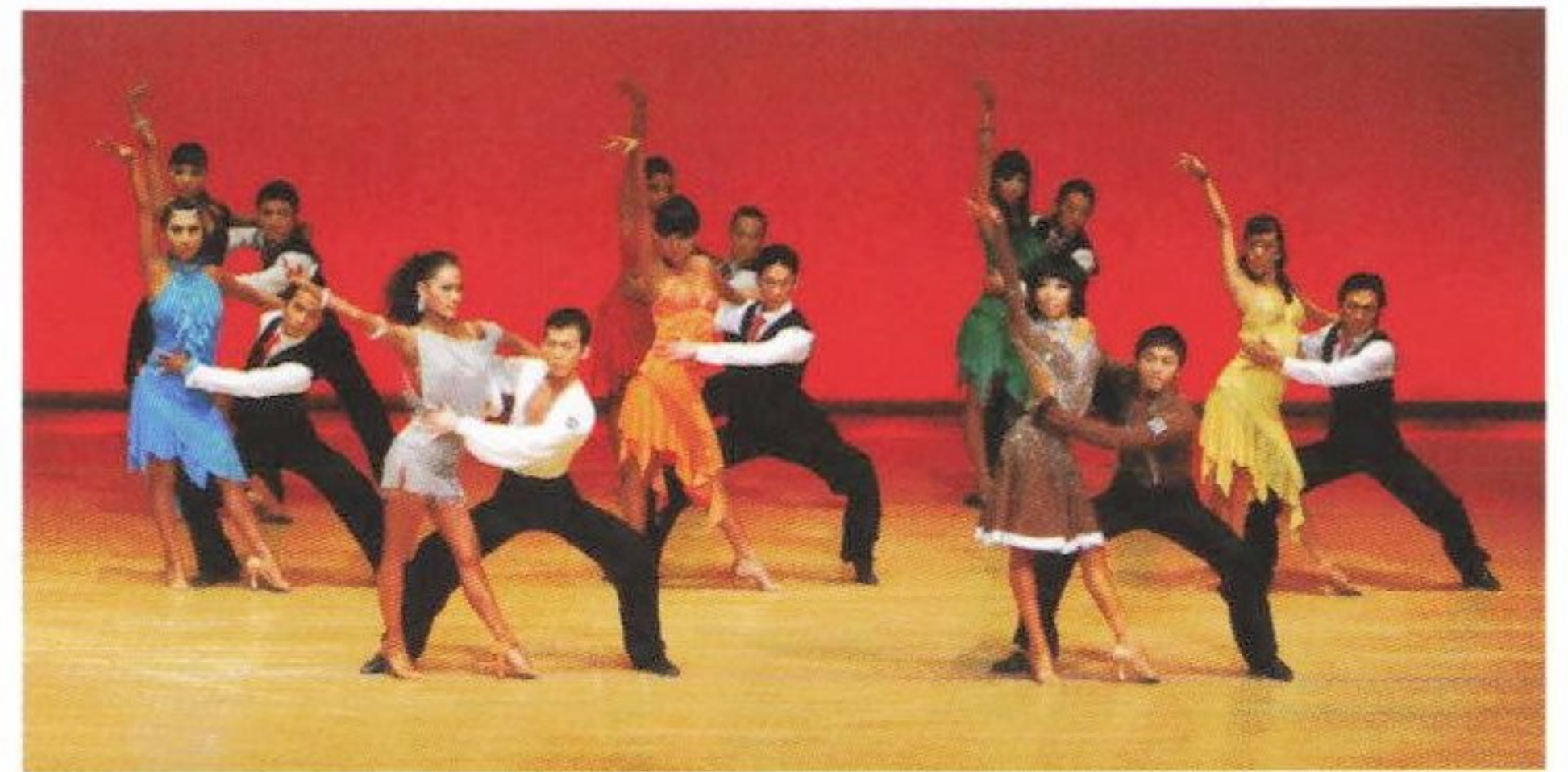
줄리어드 음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정과 줄리어드 대학원 졸업 후 Royal Conservatory of Music 연주자 최고과정을 수료한 피아니스트 김세희, 줄리어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이 들려주는 아주 특별한 음악회.

### 프로그램

- 하차투리안/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3중주
  - 베토벤/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내림나장조 작품 11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썬 무용예술단-라틴아메리칸 댄스공연단 2nd 'I LOVE SUNNY'

4월 27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국내 최초 라틴아메리칸 댄스공연단으로 지난해 창단된 썬 무용예술단이 선보이는 라틴아메리칸 댄스 무대 'I LOVE SUNNY' 부산공연.

지난해 창단기념 제주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썬무용단은 두 번째 정기공연을 부산, 거제, 제주, 마산 4개 도시에서 펼친다.

### 프로그램

Cha cha cha, Samba, Jive, Waltz, Pasodoble, Rumba, Tango, Swing

- 출연/신용민, 남종현, 임화정, 신지웅, 최해정, 김창성, 고혜림, 신세웅, 김민경, 박용국, 박신영, 송정임, 강현수, 박용혁, 강상인, 김푸름, 하민정, 김태인, 손재웅 외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문의 썬무용단(010-2983-3849)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35회 정기연주회

4월 28일-29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피아노 듀오음악의 지평을 열어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가 들려주는 제 35회 정기연주회.

■ 제 1일 28일(월) 박필은, 이화영선 피아노 듀오 연주  
부산의 중견 피아니스트 박필은, 이화영선이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연주회.

### 프로그램

-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모음곡 제 71a
- 인판테/안달루시아 춤곡
- 브람스/피아노 5중주 바단조 편곡

### ■제 2일 29일(화) 듀오의 밤

김은정 & 김영경, 서혜원 & 이수연, 박근영 & 박재영 등이 들려주는 1piano 4hands 와 2pianos 4hands 의 다양한 듀오곡 무대.

### 프로그램

- 브람스/왈츠 작품 39
- 아렌스키/모음곡 제 2번
- 미요/스카라뮤슈
-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 2번 등 수곡
- 출연/김은정&김영경, 서혜원&이수연, 박근영&박재영, 장호진&김승환, 김은주&임효진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한은아(010-3051-4945)



### 시민회관



#### 2008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현대무용단 자유 '세상사랑'

3월 31일(월)-4월 1일(화) 오후 7:30 소극장

'홀로'는 또 다른 '홀로'와 함께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대무용단 자유의 '세상사랑'.

· 안무/김수현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현대무용단 자유(510-1740)

#### 2008 부산연극제 경연작 교사극단 한새별 '옥이'

4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4월 4일 금요일 오후 4:30, 7:30 소극장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는 섬마을을 배경으로,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 물질과 성에 대한 욕망이 불러온 한바탕 소동을 그린 작품.

· 작/우혜선 · 연출/김병철

· 출연/김은정, 박경미, 김민수, 여수진, 박상국, 나종기, 이은주, 황용대 외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교사극단 한새별(011-550-2336)



#### 부산시민회관 35주년 기념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4월 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4월 6일 일요일 오후 1:00, 4:00 대극장

40년 전통의 일본극단 '비행선'이 최고의 장인기술로 제작한 캐릭터 마스크로 무대의 생동감을 더하는 마스크플레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20,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 2008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도깨비 '울 동네 합창단'

4월 6일 일요일 오후 7:30

4월 7일 월요일 오후 4:30, 7:30 소극장

마을주민들이 합창단을 조직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한바탕 소동을 그린 작품.

· 작, 연출/김익현

· 출연/박호천, 백정임, 박윤희, 차일환, 김민성, 권순호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극단 도깨비(772-4231)

#### 2008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하늘개인날 '녹야청강 배 띄워라'

4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4월 10일 목요일 오후 4:30, 7:30 소극장

망자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우리의 전통무속 진도씻김굿을 접목시켜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를 그린 작품.

· 작/김문홍 · 연출/권철

· 출연/이현욱, 김종만, 이정허, 김은경, 원경식, 이익수, 김진혁, 이민영, 최성락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극단 하늘개인날(646-0326)



#### 2008 부산연극제 경연작-극단 전위무대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4월 12일 토요일 오후 7:30

4월 13일 일요일 오후 4:30, 7:30 소극장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주인공의 삶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우리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를 조명한 작품.

· 작/김문홍 · 연출/전승환

· 출연/김진욱, 김지현, 오화정, 박현형, 엄준필, 장민, 윤석이, 이옥희, 송준승, 권기백 외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극단 전위무대(515-3390)



#### 김정원과 친구들

4월 24일 목요일 오후 8:00 대극장

한국 음악계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국내 최정상급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앙상블 무대로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탱고, 재즈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책사랑 53년 대형서점

지하1~5층  
엘리베이터연형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

국산 지구본 최상품만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

- ▶ 국 산 : 소·중·대·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
- ▶ 외국산 : 세계적 매출 독일 스틸라노바 소·중·대 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돌고, 한·영지명 출시중 색상분변 선물용최고

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

- ▶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책자
- ▶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자유
- ▶ 경제,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
- ▶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부발행지도판매
- ▶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
- ▶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

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리를 환영

#### 새 소식!

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

세계지도계 초우

한국발명특허 획득

\*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종)\*

-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대형, 코팅 벽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코팅벽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
- ★ 학생, 일반공용케이스 / 날장지도(값 5,000원)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앞 보이는 아치탈 앞  
(미니올 건너편)

각종공연예매처  
CGV10% 적립 통도원타지아 경주월드  
할인 판매처



### 프로그램

쇼팽/녹턴 작품 48 제 1번 단조

오펜바흐/자클린의 눈물

피아졸라/오블리비언 등 수곡

· 출연/김정원(피아노), 권혁주(바이올린), 김상진(비올라), 허윤정(첼로), 노영심(피아노), 양패(가수)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더 스톱프(02-2658-3546)

### 어린이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4월 27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대극장

방귀대장 뽕뽕이와 떠나는 신비로운 인체세계 탐험이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펼쳐지는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문의 SPA엔터테인먼트(760-1166)

### (더블베이스)

#### ■23일 아리아스와 함께하는 봄의 노래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소프라노 조태희의 제자들 구성된 아리아스 앙상블이 들려주는 봄의 노래.

#### ■30일 크로마 트리오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배미정, 첼리스트 곽대희, 바이올리니스트 박미정 등 독일에서 수학한 동아대학교 동문들로 결성된 크로마 트리오 정기연주회.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한연희 창단 10주년 기념연주회

4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한연희 교수를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한연희가 창단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피터와 늑대

드보르작/피아노트리오 둠키

생상/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관람료 초대

문의 김진희(011-557-5224)

책을 너무나 좋아해 읽고나서는 먹어치우는 여우를 주인공으로 한 독일 동화작가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베스트셀러를 극화한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

· 대본/홍보선 · 연출/안상우

관람료 균일 20,000원(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가람뮤지컬(1544-4852)

### 이태희 피아노독주회

4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한양대학교와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이태희 독주회.

####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Hob.XVI:23 바장조

브람스/환상곡집 작품 116 등

관람료 초대

문의 이태희(010-5299-7446)

## 금정 문화회관



미즈챔버콰이어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 ■2일 소프라노 이슬미 독창회

섬세한 음악성으로 짙은 감성을 전해온 소프라노 이슬미 독창회.

#### ■9일 미즈챔버콰이어 창단연주회

부산에서 유일한 여성챔버단체로, 클래식에서부터 무반주합창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는 미즈챔버콰이어 창단연주회.

· 지휘/김정한

#### ■16일 그라시아 플루트 앙상블 연주회

'은총, 은혜' 라는 뜻의 라틴어로, 음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그라시아 플루트 앙상블 연주회.

· 특별출연/하병욱(바리톤), 김성은(바이올린), 박성빈



### 어린이 뮤지컬 책 먹는 여우

4월 5일 토요일 오후 2:00, 4:00

4월 6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대공연장



### 슈테츠(stets) 창단 연주회-피아니스트 이은재와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 콘서트

4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신라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피아니스트 이은재가 연주인들의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창단한 연주단체 슈테츠(stets)의 창단연주회.

#### 프로그램

슈베르트/네 손의 피아노를 위한 세 곡의 군대행진곡

모차르트/네 손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다장조

### 글로벌아트홀 2008 상반기 대관 접수 중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에서 치루는

## 제5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

#### ■ 참가대상 초·중·고·대·일반

- 시 상 : 상금 총 300만원 (대상 100만원, 최우수 30만원, 우수 10만원)
- 부 문 : 피아노 성악 관악 현악 작곡 국악
- 일 시 : 5월 3일 작 곡 / 5월 4일 국 악 / 5월 10일 피아노 / 5월 12일 관현악 / 5월 24일 성 악 / 5월 31일 우수입상자연주회
- 비 고 : 학년별 및 악기별로 세분화하여 각각 심사함

- 특 전 : 각 부문 1등 입상자는 글로벌아트홀에서 우수입상자연주회 개최 cd제작
- 접수기간 : 4월 14일~4월 26일까지(우체국소인 4월26일 유효)
- 접 수 : <http://club.cyworld.com/glovil>에서 다운로드 후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인터넷접수 : [glovil@paran.com](mailto:glovil@paran.com)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글로벌아트홀 (TEL. 051-505-5995)



#### 과 제 곡

성 악/예선없이 자유곡 2곡  
피아노/예선도 1곡 외 자유곡 1곡  
관악 관악 국악/ 자유곡 1곡  
작 곡/40마디 내외 작곡  
(악기와 등기는 당일 제시)



리스트/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라코치행진곡 등  
· 연주/이은재, 이수정, 김소연, 김지민, 이혜진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프렉스(317-2300)

### 라이브뮤지컬 정글북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4월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소공연장  
정글을 옮겨놓은 듯한 화려한 무대와 생생한 라이브 연주가 재미를 더하는 가족뮤지컬.  
· 작, 연출/이은성  
· 출연/박재준, 신정만, 윤미진, 김아라, 박대성  
관람료 균일 12,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 2007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문음악회

4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음악인들이 들려주는 동문음악회.  
· 출연/신정아, 이수연(피아노), 조혜령(소프라노), 양송미(메조소프라노), 김지연(비올라), 정재은(플루트)  
관람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 동아필 관현악단 첫번째 기획연주회

4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동문들로 결성된 동아필 관현악단 현악파트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킬라르/오라바  
바흐/관현악 조곡 제 2번  
구레초키/피아노와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등  
· 지휘/이동신(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피아노/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플루트/이상창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박미정(010-9329-8455)

### 엄세희 바이올린 리사이틀

4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미국 이스트만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엄세희 리사이틀.  
프로그램  
이차이/바이올린 소나타 제 2번  
바흐/파르티타 제 3번 마장조  
코다이/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등  
· 첼로/유대연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0회 정기연주회 봄의 여정 Road '길'

4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4대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배양현의 객원지휘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0회 정기연주회-봄의 여정 Road '길'.  
프로그램  
이경섭/공놀이[부산초연]  
이준호/소금협주곡 '길'  
강봉천(편곡)/거문고 협주곡 '정읍사'[부산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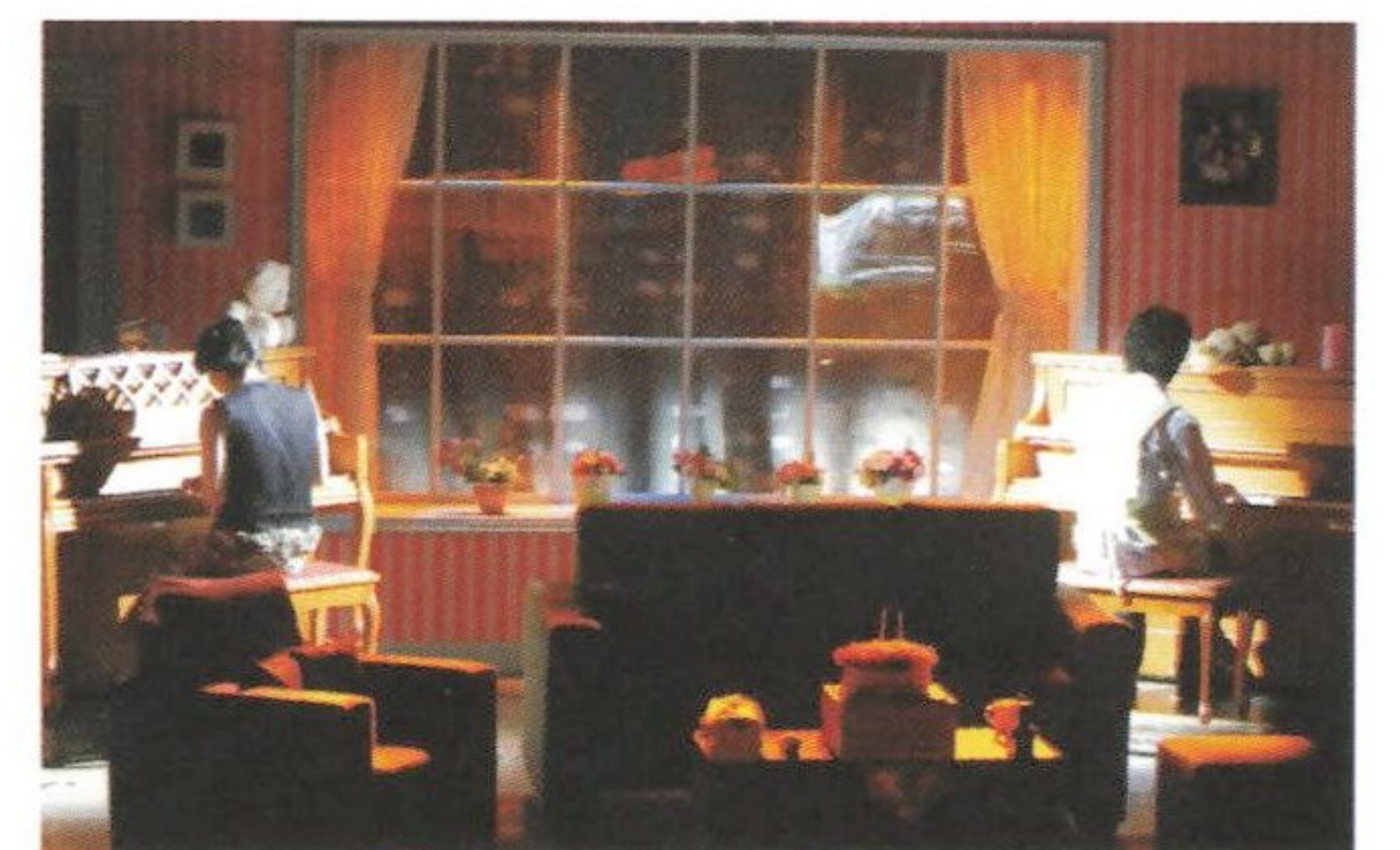
이준호/사물놀이를 위한 합주곡 '길'[부산초연] 등  
· 지휘/배양현(부산대학교 교수)  
· 협연/권은영(거문고, 부산대학교 교수), 박성희, 한영길, 이주현, 최오성, 신문범, 전학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기타와 호른, 피아노 연주회

4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가정의학과 의사이면서 클래식기타리스트인 곽승웅의 7번째 무대.  
그의 절친한 동료 최준호의 호른 연주와 함께 바흐, 망고레, 메를린 등의 클래식기타 독주와 브라우워의 기타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탄테를 들려준다.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곽승웅(757-7552)



###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4월 26일 토요일 오후 4:00, 7:30  
4월 27일 일요일 오후 3:00, 6:30 대공연장  
지난해 10월 창작뮤지컬 사상 최초로 2,000회 공연이란 대기록을 달성한 창작뮤지컬로, 두 형제의 갈등과 우애를 그린 작품이다.  
· 작/오은희 · 작곡/최귀섭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YAMAHA** 야마하 공식 A/S점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감동은 · 함께 · 만듭니다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홀플러스 : 051) 506-7332





### 제 2회 김희쟁 발레공연

4월 28일 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브이슈발레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쟁 발레공연. '백조의 호수' 1막 'Pas de trois', 라 비벤디에르 등 클래식 작품과 창작 발레 '유혹 red apple'을 선보인다.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대학교(510-1740, 018-566-5621)



### 소프라노 김현숙 독창회

4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김현숙 독창회. 김현숙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테마를 선정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발표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이'를 테마로, 무소르르스키의 '어린이 방' 전곡을 비롯 브람스와 슈베르트의 자장가 등으로 꾸며진다. 관람료 초대

문의 김현숙(240-2820)

전래동화 '별주부전'에 판소리와 토속민요, 탈춤, 꼭두각시 인형극이 함께하는 국악체험놀이극.

·연출/이덕인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 해운대 문화회관

### 동요나라 페스티벌

4월 3일-4일 목-금요일 오전 10:00, 11:20, 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대공연장

혼성 5인조로 구성된 국내 최초 어린이를 위한 그룹 '프리즈'와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동요 콘서트.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1주년 기획공연 디오티마 4중주단 초청콘서트

4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지난 2004년 최고의 재능을 가진 젊은 뮤지션들에게 주는 '올해의 디아파종도르' 상을 수상한 프랑스 현악4중주단인 '디오티마 4중주단' 초청 콘서트.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가톨릭 센터



###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 ■1일 김용호 아쟁 독주회 'Sweetness'

경북도립국악단 아쟁 수석으로 있는 김용호 아쟁 독주회.

김용호는 2003년과 2005년 독일 뮌헨 초청연주회를 통해 주요 언론에 '동양의 신비로운 소리'로 호평받았으며, 유럽 5개 도시와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무대를 통해 우리의 전통음악을 알리고 있다.

· 피아노, 신디/이지민 · 첼로/조혜리

· 찬조출연/국악퓨전앙상블 '금요일 오후'

#### ■8일 조혜령&다오낫 광 조인트 리사이틀

소프라노 조혜령과 피아니스트 다오낫 광이 마련하는 조인트 리사이틀.

#### ■22일 부산가야금오케스트라 연주회

부산가야금오케스트라 단원인 배효정, 황정원, 이민지, 김두경, 이주연과 피아니스트 허예린이 함께하는 가야금과 피아노와의 만남.

#### ■29일 오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동아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 음대에서 연주석사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오현정 독주회.

· 피아노/김일주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 음속도 문화회관

### 국악체험놀이극 얼씨구나 용궁가자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대공연장



안녕하세요. 모짜르트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 친절함 서비스  
가족 · 연인 · 친구 · 각종모임에 찾아주세요.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돈가스 ₩6,000원(디저트 포함)
- ★따끈따끈 단팔죽+녹차 ₩5,000원
- ★원두커피+쿠키 ₩3,500원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 부산의 소극장



#### 룸번호13

3월 7일(금)-4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30, 7:30 공간소극장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총재 비서의 스캔들이라는 설정속에 계속 터지는 황당한 사건들이 웃음을 던지는 코믹극.

· 작/레이쿠니 · 연출/양혁철

· 출연/송영재, 조윤정, 권오을, 정현주, 김찬영 외

관람료 균일 30,000원(예매시 4,000원 할인)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 구민주 모노드라마 영순아 어디가니?

3월 18일(화)-6월 1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4/8일-4/13일, 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 소극장

매번 자살을 시도하는 주인공 영순을 통해 죽음의 의미와 삶을 생각하게 하는 구민주 모노드라마.

· 연출/호민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극단 아센(504-2544)



#### 락시터(樂時터):즐거운 시절

3월 21일(금)-4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극작가 이근삼의 '낙시터 전쟁'을 새롭게 각색, 젊은 세대의 정신적 빈곤과 노인의 소외문제를 통해 현대인의 세대간 갈등을 그린 연극 '락시터'.

· 원작/이근삼 · 각색, 연출/위성신

· 출연/신기섭, 손강국, 전형숙, 오종훈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 열린소극장 예술공동체 창작단편 프로젝트 어떤 싸움의기록, 얼리어답터, 거짓말

4월 1일(화)-2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폭력의 철학, 디지털 문명의 가속성, 관계맺음의 욕망이라는 각각의 테마를 지닌 창작단편극 '어떤 싸움의 기록(작,연출/구현철)', '얼리어답터(작, 연출/김근수)', '거짓말(작, 연출/김세환)'이 옴니버스형식으로 무대에

오른다.

· 예술감독/최웅 · 기획/황미애

· 출연/하현관, 이효림, 박훈영, 손남숙, 엄혜린, 서경화

관람료 일반 10,000원·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 코믹극 '뉴 보잉보잉'

4월 4일(금)-27일(일) 화-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5:00,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단 9일은 오후 3:00, 6:00, 11일은 오후 7:3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세 명의 애인을 둔 바람둥이 주인공의 집에 동시에 애인들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아슬아슬 삼각 애정행각을 다룬 폭소 코믹극.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 시네마테크 부산

#### 세계영화사의 위대한 유산 월드시네마 V

3월 14일(금)-4월 13일(일) 오후 12:30, 2:30,  
5:10, 7:30 시네마테크 부산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에서부터 그동안 접할 기회가 적었던 숨겨진 걸작까지 세계영화사에 빛나는 걸작을 상영하는 고전영화의 축제 월드시네마 다섯 번째 상영전.

찰리 채플린의 위대한 무성영화 '시티라이트'에서부터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희몽인생'까지 2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관람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inema.piff.org)

대학과 동등한(학점은행제) 교육기관  
Guide for Your Dreaming BUSAN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오악원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BUSAN CONSERVATORY BUSANCONSERVATORY Art Hall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595-61  
사무실 T. 051-501-3999 FAX. 051-505-3999  
홈페이지. www.bscon.co.kr

## 부산콘서바토리오악원

학위과정 학사/전문학사/복수(타전공)학위  
(매년 2월, 8월중에 모집)  
성악(뮤지컬), 피아노, 관현악, 작곡,  
지휘, 교회음악(CCM)

유학과정 조기, 단기, 장기유학(유럽 전지역)  
본원 자매학교 - 체코 브르노콘서바토리

입시원 예중, 예고, 대학, 편입, 대학원 등 철저한 개인위주의 시스템  
취미과정 모든 과정 개인레슨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대관 - 연주회, 마스터클래스, 세미나 등



### 행사



#### 새로운 400년을 향하여 2008 조선통신사 축제

5월 2일(금)-4일(일) 동구 영가대, 용두산공원, 광복로 일대

조선통신사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인 부산에서 펼쳐지는 한·일 문화교류축전으로, 해신제,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 전별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문의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816-3371~2, www.tongsinsa.com)

### 화랑가

#### 2008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특별전 The 12nd Project of NEWFORM '쌍쌍파티'

3월 7일(금)-4월 6일(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문의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553-4944)

#### 백성혜 초대전

3월 18일(화)-4월 6일(일) 갤러리 예가

하늘과 땅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를 소재로, 생성과 소멸의 우주질서를 표현한 작가 백성혜 초대전.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 2008 꽃그림전 '축제'

3월 20일(목)-4월 9일(수) 타워갤러리

화사한 꽃그림으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타워갤러리 2008 꽃그림 전.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부산미술 80년, 부산의 작가들

3월 21일(금)-5월 12일(월) 부산시립미술관

미술 전 장르에 걸쳐 부산에서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 500여 명의 작품을 전시하는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 갤러리 다다아트 개관 초대전

3월 22일(토)-4월 23일(수) 다다아트 갤러리

문의 다다아트갤러리(744-2660)



#### 함-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궁궐사진' 전

3월 25일(화)-6월 1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촬영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미공개 유리건판사진(잘 닦은 유리판에 감광제를 발라 말린 것으로 필름이 발명되기 전까지 사용된 사진원판) 38,000장 중 조선시대 궁궐관련 사진 100여점을 전시하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 순회전.

문의 부산박물관(624-6341~4)

#### 상록회 사진전 뱃길 따라 3시간

4월 1일(화)-4월 6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 이경홍 사진전 '유랑(流浪)은 빛'

4월 1일(화)-4월 30일(수) 부산프랑스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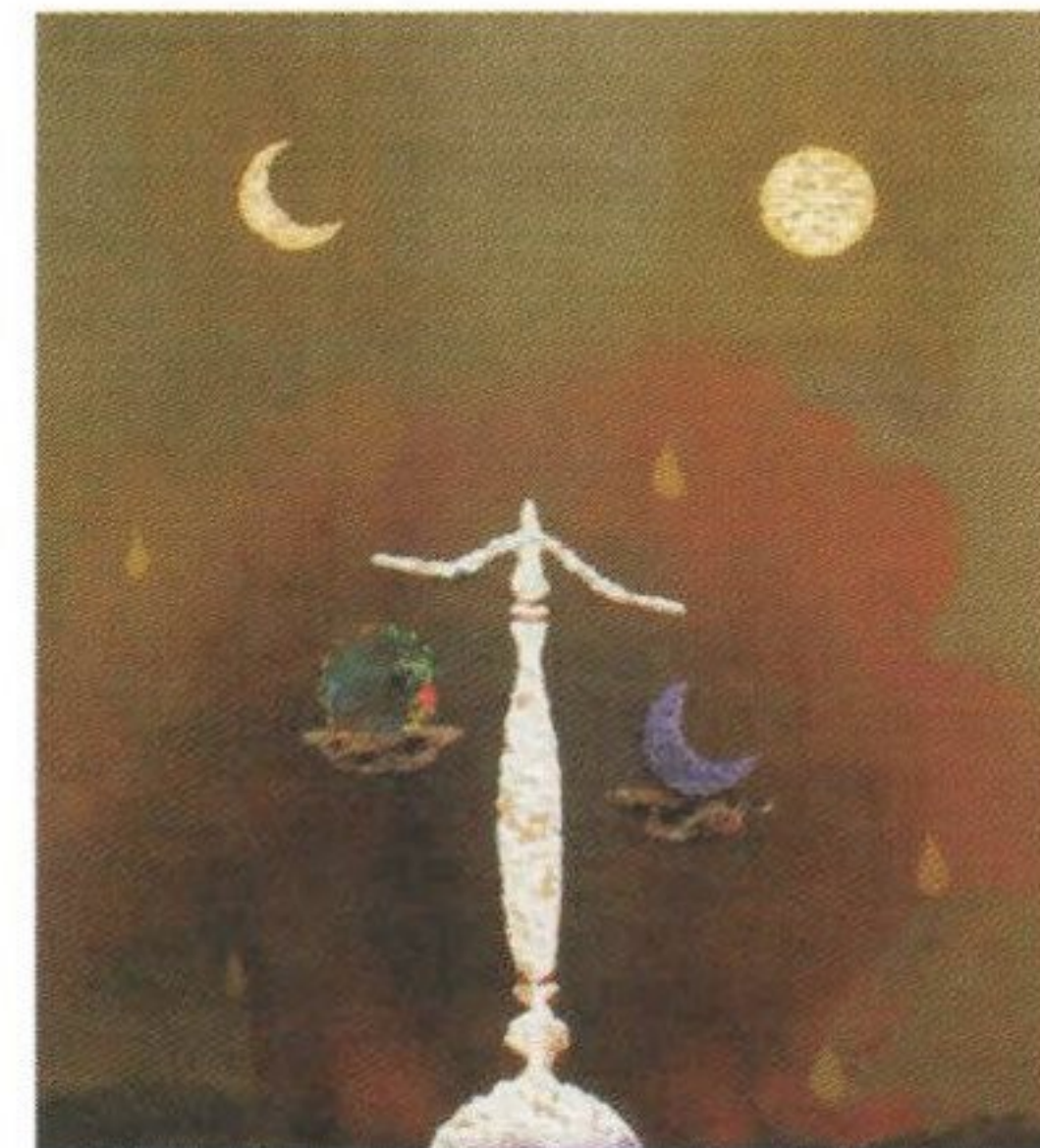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와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교수로 있는 사진작가 이경홍 사진전.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 낙동강, 그 고요함에 관한 기록 禪낙동강

4월 8일(화)-4월 13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 곽호진 초대전

4월 8일(목)-4월 27일(일) 갤러리 예가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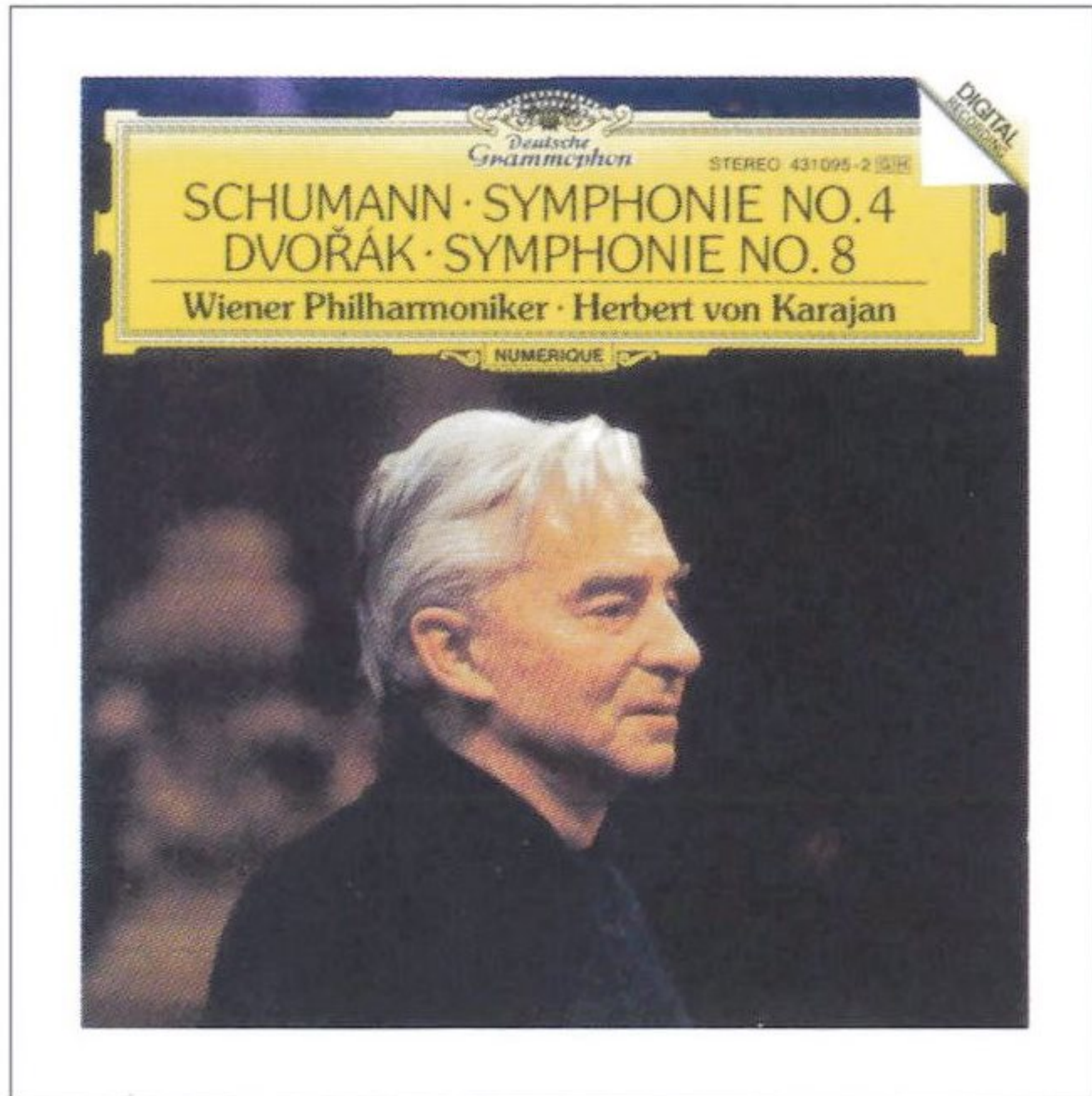
### 곽호진 초대전

2005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석사학위 취득 후 갖는 국내 첫 초대 개인전

2008년 4월 8일(화) ~ 4월 27일(일)

갤러리 藝家 문의전화 : 624-0933





## 드보르작 교향곡 제 8번

- 지휘/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 연주/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G(1985년)

국민악파 작곡가들의 작품을 녹음한 음반을 논할 때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과연 민족적인 향토색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위 음반은 그리 큰 점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반을 소개하는 이유는 카라얀과 빈 필이 빚어내는 화려한 관현악의 향연이 너무나도 눈부시기 때문이다.

1악장과 3악장 시작 부분의 현악기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하며 2악장에서 클라이맥스로 치달는 부분의 트럼펫 소리는 찬란하기 그지없다. 호른과 트롬본의 장려함도 놀라우며 4악장의 리듬감도 절도있고 명확하다. 경쾌한 템포로서 곡 전체를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연주하는 카라얀의 곡에 대한 통찰력도 놀라우며 여기에 화답하는 빈 필의 연주력은 감탄을 자아내게 만든다. 37분짜리 교향곡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는 이 연주는 전통적인 명반으로 알려진 쉘/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나 노이만/체코필 등과 함께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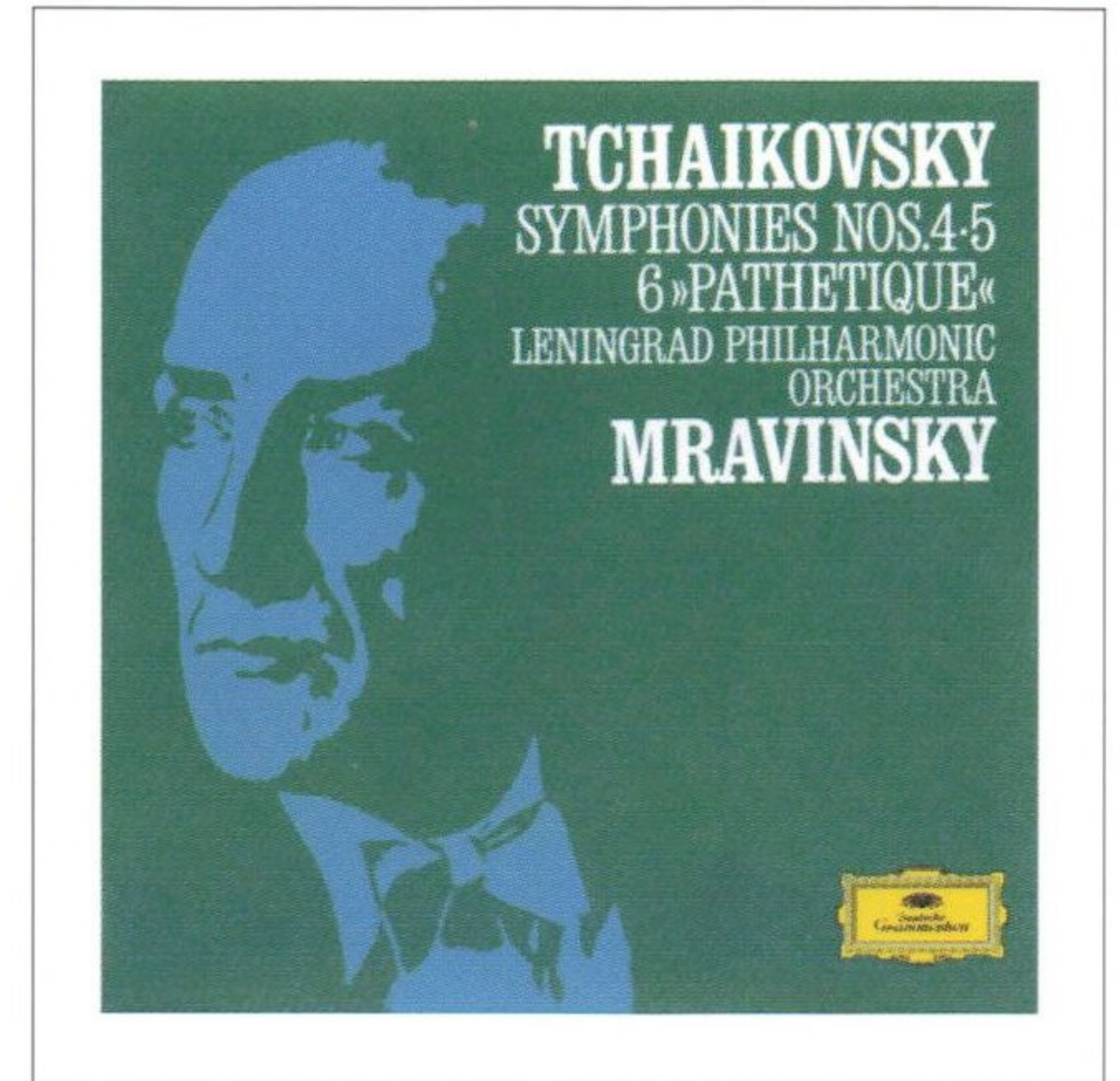


## 브람스 교향곡 제 4번

- 지휘/카를로스 클라이버
- 연주/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G(1980년)

브람스 교향곡의 수많은 음반들 중에서도 이 음반만큼 호불호가 갈리고 논쟁거리가 되는 음반은 드물 것이다. 필자 또한 이 음반이 명반으로 분류되기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DG의 답답한 녹음 탓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색창연한 빈필의 사운드를 듣기도 힘들고 브람스의 중후함이나 고독함을 느낄 수도 없다. 또한 템포 선정도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음반을 자주 듣는 이유는 다름아닌 클라이버의 치밀한 해석 때문이다.

명료한 프레이징은 클라이버의 장기이며 각각의 프레이즈마다 다른 성격을 부여하며 변화무쌍한 색채를 들려주면서도 그 흐름이 유연하여 전체적인 통일감을 흐트리지 않는다. 지나치게 빠른 템포의 4악장도 시원시원하게 들리며 그 와중에서도 중간부의 애절함을 잃지 않는 균형감이 돋보인다. 발터/콜롬비아나 뵘/빈필, 번스타인/빈필, 줄리니/빈필 등 필자가 좋아하는 음반도 많지만 클라이버의 이 연주는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는 묘한 음반이라 지금도 호기심에 자주 듣게 되는 또 하나의 소중한 음반이다.



##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5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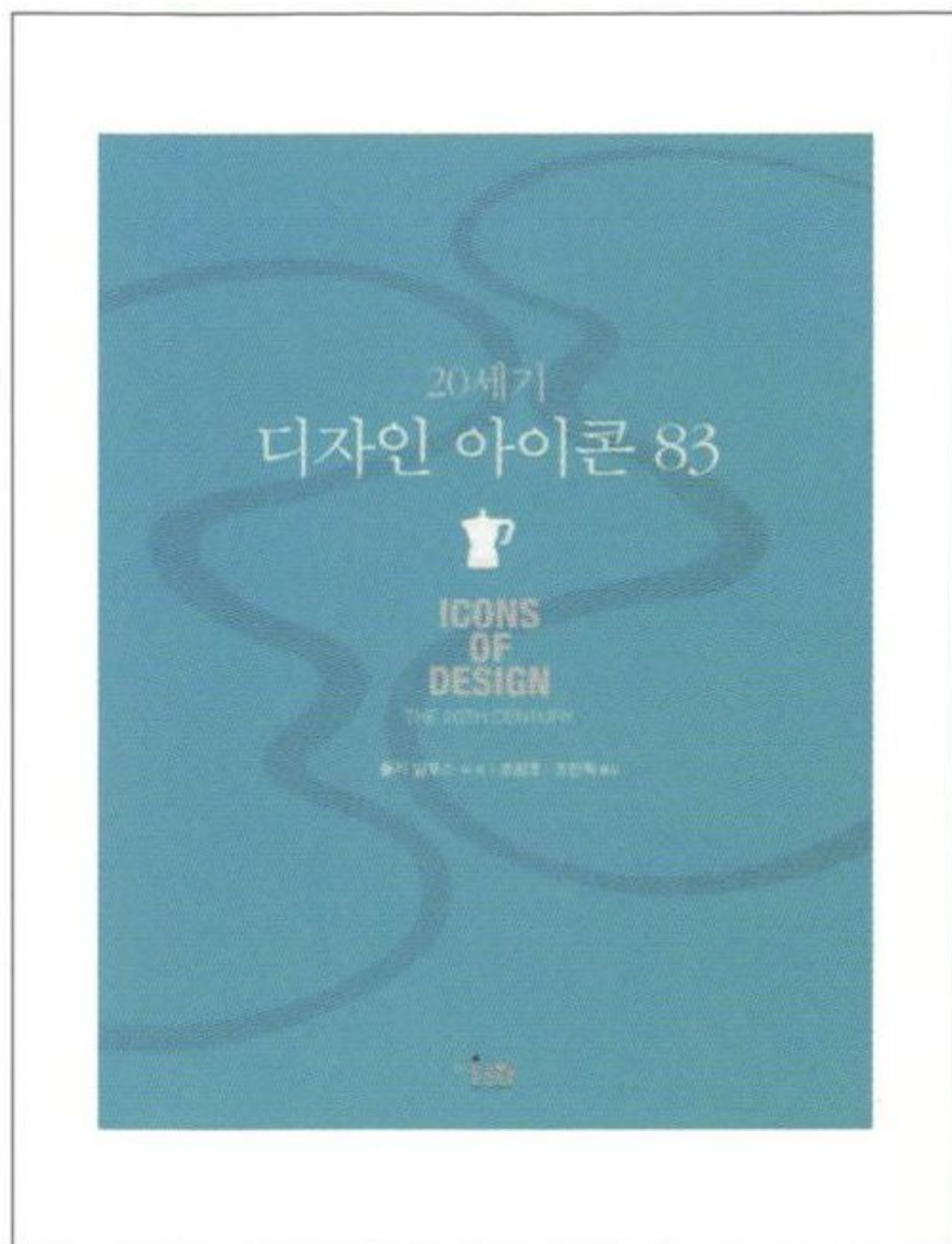
- 지휘/예프게니 므라빈스키
- 연주/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G(1960년)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하면 떠오르는 몇 장의 음반들. 질주하는 스베틀라노프/USSR심포니의 호방함, 세련되고 정교한 안손스/오슬로 필의 현대적 감각, 거칠고 단단한 게르기에프/빈필의 웅장함, 그리고 이 모든 음반들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번스타인/뉴욕필의 독특한 개성.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므라빈스키의 음반이 서있다.

거침없이 몰아치는 속도감과 레닌드라드 필하모닉의 힘차고 강인한 울림이 들려주는 진정한 fff,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서정성, 치밀한 앙상블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주하는 각 악기들의 일사불란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독려하며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해석의 전형을 교과서적으로 재현하는 므라빈스키의 위대함이 이 음반에 있다고 느껴진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 음반은 단순히 이 곡의 명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음반사상 몇 손가락에 꼽히는 역사적인 명연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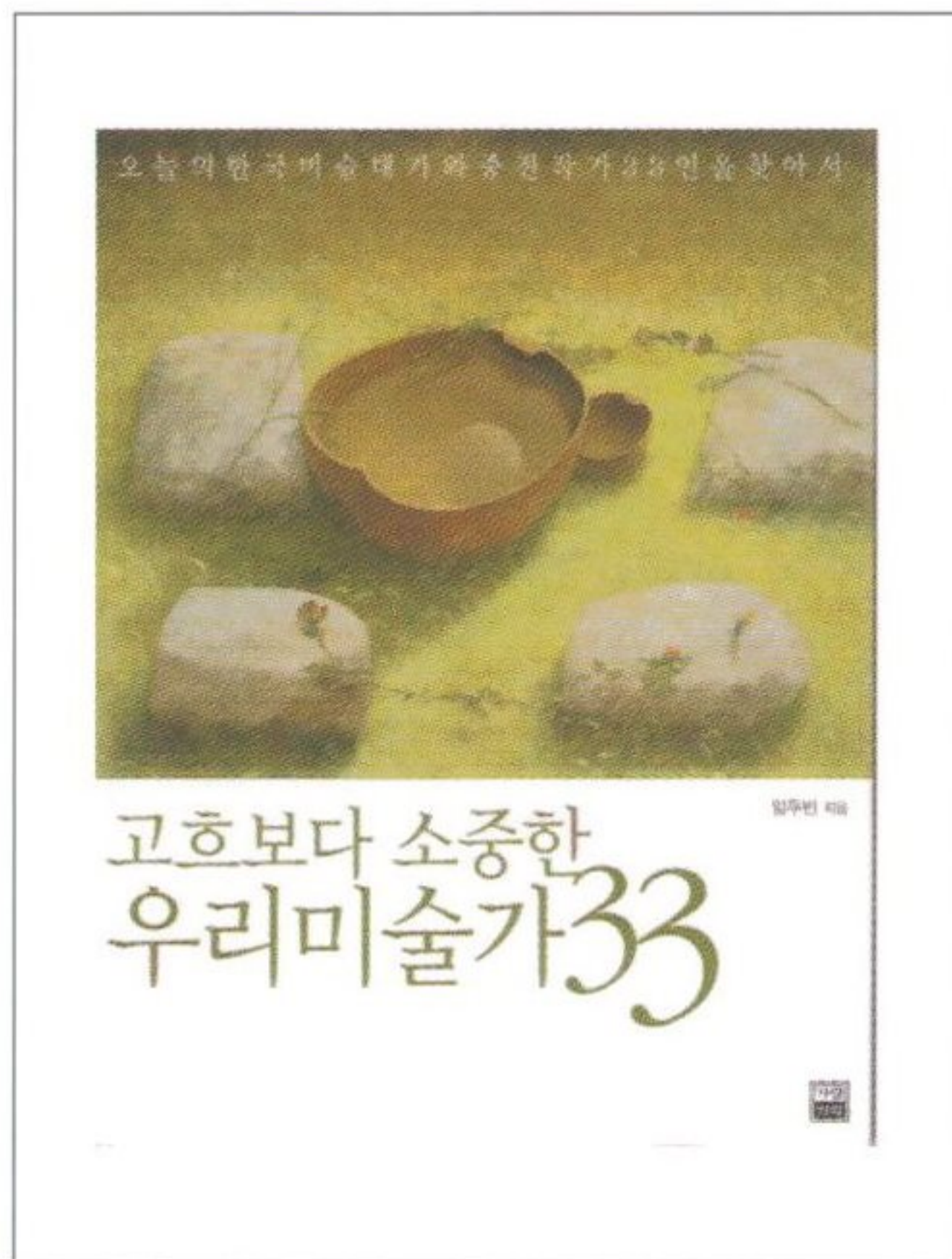




## 20세기 디자인 아이콘 83

· 폴커 알부스 외 편 · 미술문화  
· 349p ·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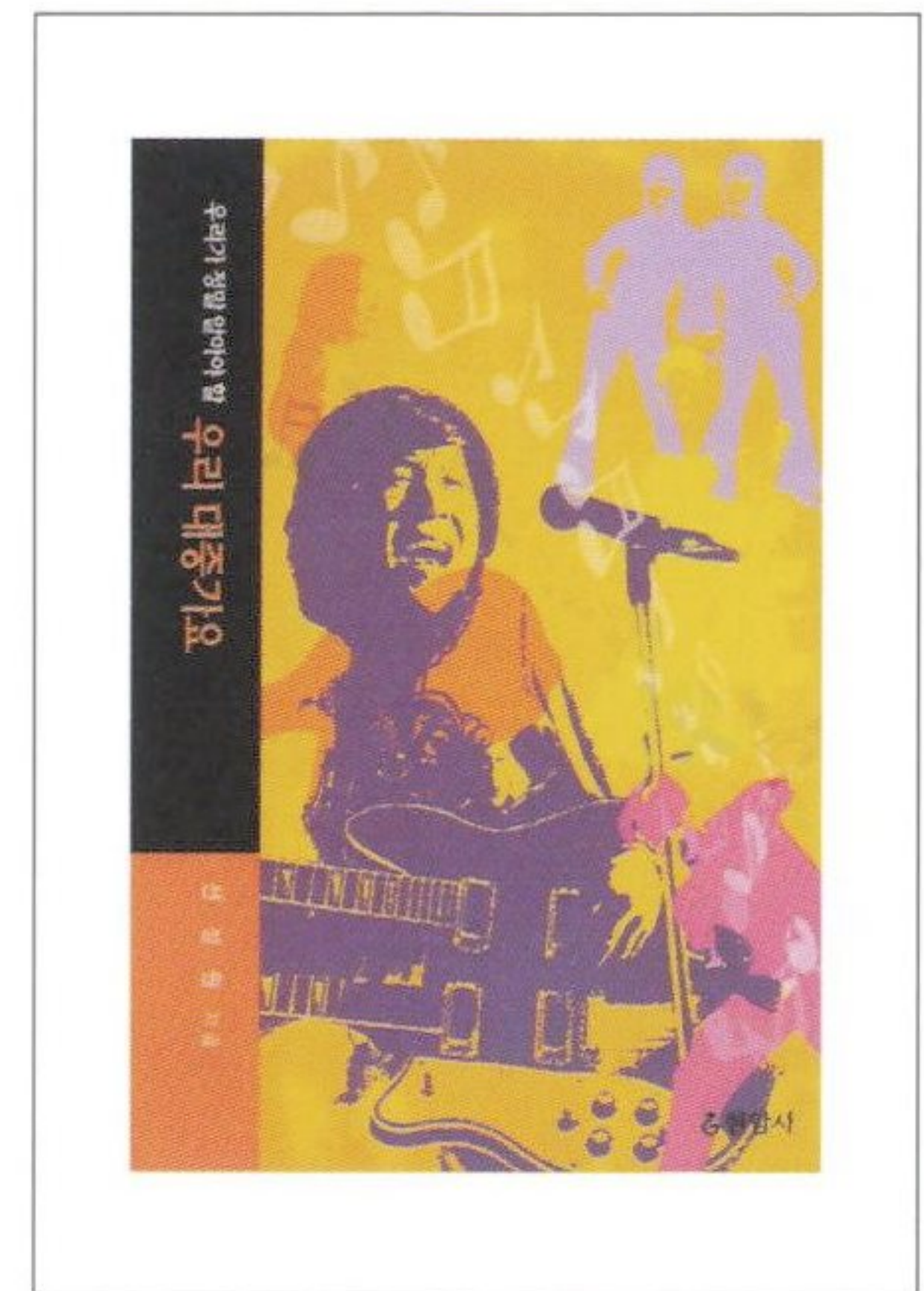
Bic 볼펜, 지포 라이터, 바비 인형, 콤팩트 디스크의 공통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건이며, 선명하게 각인되는 디자인이다. 지금 쓰고 있는 볼펜, 앉아 있는 의자, 옆에 놓인 스탠드까지도, 50년 혹은 100년 전의 어느 디자이너 머릿속에서 번뜩인 아이디어라는 것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멋진 일인가. 10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디자인 사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 일상생활에 친숙해진 디자인 이야기를 83개의 대표적 경우를 통해 보여주는 책이 나왔다. 세계의 21명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디자인의 역사를 바꾼 '선수'들을 엄선하여 골라냈다. 르 코르뷔지에의 긴 안락의자, 알바 알토의 사보이 꽃병, 필립 스타크의 주시살리프(레몬즙 짜는 기계), 아르네 야콥슨의 개미의자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대표적인 작품을 망라한 20세기 디자인의 역사이다. 혁신적인 83개의 디자인은 21명의 저자만큼이나 다양하다. 디자인이라는 예술과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기술의 발전을 한 눈에 본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유익한 일이다. 생활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독자들에게 권한다.



## 고흐보다 소중한 우리미술가 33

· 임두빈 지음 · 가람기획  
· 462p · 22,000원

우리나라 정상의 현역미술가 33인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4년 동안 발로 뛰며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의 올곧은 작가정신을 기본으로 한 예술세계를 집중 재조명한 책. 33인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작업실을 방문하는 여정을 여행하듯 그려내고 있다. 작업실 분위기와 주변 풍광이 생생히 느껴지는 사실적인 묘사를 시작으로, 저자는 작가와의 대화를 이끌어간다. 이 책에서는 작가마다 각 시기별 작품을 풍부하게 실어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대한 진정성까지 진솔하게 쏟아내는 인터뷰는, 그들의 작품이 왜 가치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 현장 인터뷰만이 가진 특권을 저자는 독자에게 아낌없이 전달해주고 있다. 미술평론가이자 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예리한 작품해석은 일반 독자가 미술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고 평가하는 데 잣대가 될 것이다. 또한 미술작품 경매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술작품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미술은 돈이나 물건과는 달라서, 비싼 재료나 좋은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혼이 들어 있는 예술임을 일깨워준다.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대중가요

· 선성원 지음 · 현암사  
· 520p · 18,000원

대중음악평론가 선성원 씨가 시대별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민중문화사를 볼 수 있는 책. 대중음악에는 서민의 삶이 녹아 있다. 그래서 대중음악의 변화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 흐름을 볼 수 있다. 구한말부터 현대까지 한 세기 동안에 일제 강점과 전쟁 등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민족의 애환이 많이 녹아있는 우리 대중가요에서는 그 흐름을 더 잘 볼 수 있다. 또한 서민의 삶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기에 각 개인사와도 연관이 많다. 지나간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노래에 얽힌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 대중가요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래와 가수, 시대에 얽힌 이야기를 폭넓게 담았다. 시대를 특징짓는 119개 이야기에 그 시절을 대표하는 노래를 한 곡씩 뽑아 관련 이야기를 풀어냈다. 노랫말과 엔카 풍 노래·번안가요·해금가요 목록도 수록하고, 트로트 원조에 대한 논란, 터무니없는 이유로 금지곡이 된 노래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신중현 간의 애증, 김추자 간첩설, 올림픽과 월드컵 홍보 곡을 다른 나라에 내준 이야기 등 읽을거리가 많다. 풍속사·사회사 분야의 연구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은 책이다.



# 가야 역사의 보고 창녕 속으로 떠난 역사체험

“창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6년 3월 ‘경주 수학여행 다시 가기’로 시작된 정기회원 테마여행 스물다섯 번째 여행지는 경남 창녕.

14일 오전 9시, 전날 내린 비로 행여 여행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모두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했다. 테마여행에서는 벌써 네번째 창녕 여행이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우포늪의 유명세 때문에 매년 우포늪 탐방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던 탓에 이번 창녕 역사 체험은 설렘이 더 컸다. 이날 여행에는 부산시립극단 무대감독 정순지 씨와 비상임 신입단원 3명이 동행했다.

“가야와 신라시대의 문화가 남아 있는 창녕은요~ 국보 1점과 보물 3점 등 유산이 많아서 작은 경주라고도 불립니다.”

창녕 박물관에서 정기회원을 반겨주는 한미숙 문화유산해설

사와 드디어 창녕 역사 속으로 출발. 바쁘게, 대형화를 강조하는 도시사람들에게는 아기자기한 창녕 박물관과 고분군이 신기하게 보인다. 1억 4천만년 전에 형성된 우포늪에서 부터 가야와 신라시대, 조선시대 역사 유적, 치열한 낙동강 전투를 막아낸 격전지 기념비까지 있는 창녕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박한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오전 일정은 문화유산해설사와 창녕박물관과 석빙고, 민옥정 공원을 둘러보았다. 잘 다듬어진 만옥정 공원에는 진흥왕 척경비(국보 33호), 창녕 객사, 창녕 척화비, 퇴천 3층석탑, 창녕현감비군, 지석묘(고인돌)가 자리하고 있다.

2월 정도 여행에서 둘러본 석빙고의 신비로움이 아직 생생한데 이번에는 창녕의 석빙고를 직접 들어 가보는 행운을 누렸다. 석빙고는 겨울에 강에서 채취한 깨끗한 얼음을 저장했다가







## 창녕 여행추천코스

창녕박물관-석빙고-만옥정공원-술정리 동탑-미림원 양파 싹장체험 및 중식-고암제다원

- 창녕박물관-석빙고-만옥정공원-술정리 동탑-서씨 고택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 체험도 가능
- 고암제다원 양파 싹장 체험은 30명 이상 단체만 가능(<http://www.onionfood.or.kr>)

※ 5월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과 **김해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 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 원님들은 테마여행 신청 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주시시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여름에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땅을 파고 만들었다. 바깥에서 보면 무덤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땅을 깊게 판 다음 안쪽 벽은 석재로 쌓고 천정에 환기구를 두어 더운 공기가 바깥으로 배출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청도의 석빙고(보물 제323호)는 석벽과 홍예 등 골격만 남아 있지만 창녕의 석빙고(보물 제310호)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해설사의 안내로 석빙고 안을 들어가는 순간 물려드는 냉기에 모두들 환호~. 석빙고를 만들어 얼음을 보관한 조상들의 지혜에 다시 감탄했다.

창녕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안윤주 회원은 “사거리 아파트가 큰집인데도 창녕 석빙고를 처음 봤다”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차근차근 창녕의 역사를 재미있게 설명해준 해설사와 아쉬운 이별을 고하고 양파싹장 체험장으로 향했다. 창녕의 명물 양파를 이용해 우리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는 고암 제다원(원장 장명숙)에서 운영하는 미림원에서 창녕 양파 엑기스와 4년 묵은 된장, 삶은 메주콩 등을 섞어 맛깔스런 양파 싹장을 만들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조제(?)한 양파 싹장으로 냉이를 무쳐보고, 뽕잎 국수를 비벼 먹고 돼지고기를 직접 양념해 푸짐한 점심상을 차렸다.

점심식사 후 찾은 오후 방문지는 고암면 간상리에 위치한 고암제다원. 창녕에서 나는 사계절 꽃과 풀과 나무를 이용해 차를 만들고 있는 고암제다원에서 시립극단 단원들이 짧게 구성한 신파극공연이 펼쳐졌다. 연극놀이 통해 다양한 표현방식도 배웠다. 배우들과 처음 만난 회원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회원들이 함께 참가한 떡메치기에 이어 고암 제다원 장명숙 원장이 직접 만든 차를 마시며 3월의 특별한 하루를 마무리 했다. 따스한 봄날 문화와 연애를 다짐한 정기회원 가족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다.

##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가입자

강희석(부산진구 양정동)  
구한석(동구 범일1동)  
백옥재(부산진구 개금3동)  
예영채(동래구 명륜1동)  
이상찬(부산진구 범천2동)  
이영일(남구 대연4동)  
이정금(금정구 부곡3동)  
이정희(금정구 구서1동)  
정선영(해운대구 좌동)  
황국길(동래구 거제1동)

### 엽서 당첨자

김순배(중구 대청동)  
김화남(사상구 주례1동)  
유용환(남구 대연동)  
서찬기(남구 우암1동)  
이홍복(중구 중앙동4가)  
이수재(부산진구 당감3동)  
장지원(남구 용호3동)  
조경남(부산진구 양정2동)  
조귀연(연제구 연산7동)  
조옥재(남구 용호동)



# N | E | W | S

## N|E|W|S 1 부산시립교향악단 2008 서울 교향악 축제, 성산교향악축제 참가



4월 8일 제438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4월 연주 일정을 시작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08 교향악축제와 영호남의 5개 교향악단들이 펼치는 성산교향악축제에 참가한다.

4월 1일 막이 오르는 예술의전당 2008 교향악축제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향악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교향악 축제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5일 제439회 정기연주회(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협연/김정은)를 마친 뒤 17일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주한다.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리는 성산교향악축제는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올해 처음 기획한 무대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 창원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등 영·호남의 5개 교향악단이 참가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23일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지휘, 첼리스트 송영훈 협연으로 성산교향악축제에 참가할 예정이다.

## N|E|W|S 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종이학 추첨 특별 이벤트 행사 마련



지난 3월 6일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과 전영록의 11시 종이학 이야기'로 시민들에게 정겨운 추억을 선사했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그날 참석한 시민들이 접은 종이학을 추첨해 푸짐한 선물을 선사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호성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와 파트장들은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꿈과 소망을 담아 곱게 접어 제출한 종이학 중 30개를 추첨했다. 당첨된 20명에게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실황이 담긴 DVD를, 또 다른 10명에게는 3월 27일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9회 정기연주회 초대권 2매씩을 선물로 증정했다.



# N | E | W | S

## N|E|W|S 3 “어깨춤이 절로난다” 부산시립무용단 복지관 순회공연 성황



3월 3일부터 14일까지 부산지역 10개 복지관에서 순회공연을 펼친 부산시립무용단의 ‘2008 찾아가는 무용’ 공연이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막을 내렸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연산동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무대 여

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크고 작은 복지관 강당에서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전해준 부산시립무용단은 어르신들과 함께 춤추고 어우러진 10일 동안 큰 보람을 느꼈다.

지난 12일 복지시설 어르신 40여명과 유치원생 60여명이 참가한 해운대구 반여동 영진사회복지관에서는 불편한 몸으로 처음 보는 무용 공연에서 어깨춤을 추는 어르신들과 유치원생들의 환호가 대단했다. 우리 춤과 동래야류 중 할미과장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찾아가는 무용-복지관 순회공연’은 내년에도 공연을 희망하는 복지관의 신청을 받아 계속 펼쳐질 예정이다.

## 부산광역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21세기 부산문화예술 창달의 주역이 될 참신하고 유능한 신규단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1.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단체명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전형과목
소년소녀합창단	비상입단원(합창)	26명	2008신학기 기준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용모 단정한 어린이	자유곡 1곡 ※ 본합창단 반주자가 합 (응시시 반주자 동반 가능)

### 2. 전형일시 및 장소

- 실기(1차) : 2008. 4. 19(토) 14 : 00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 면접(2차) : 2008. 4. 24(목) 17 : 00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 3. 합격자 발표

- 실기(1차) : 2008. 4. 22(화) 13 : 00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최종(2차) : 2008. 4. 29(화) 15 : 00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8. 4. 1(화) 부터 2008. 4. 16(수) 18:00까지
- 접 수 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607-6048)
-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사진2매.

### 5. 기타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 100자 토크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3회 정기연주회

김대진과 함께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 18은 나에게 큰 감명을 줬다. 해설자의 말에 따르면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가 교향곡 제1번의 대실패 이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준 곡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라흐마니노프의 절망과 슬픔이 절절히 느껴졌다. 하지만 그 절망과 슬픔 속에 피어나는 희망을 또 엿볼 수 있었다. 두번째 곡인 교향곡 제2번은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되었다. 아주 긴 곡이었지만 그 음악에 빠져서 시간 가는줄 모르고 감상했었다. 실패 후의 성공은 더욱 더 값진 법이다.

정재연(금정구 남산동)

###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계절을 여는 을숙도 봄 콘서트'

계절을 여는 봄 콘서트란 제목에서 벌써 봄을 느꼈고 설레는 마음으로 음악회장으로 출발했다. 아니나 다를까, 햇살이 쏟아지는 파란 하늘 아래 넓은 초원속으로 들어가 꽃들이 만발한 꽃밭속을 날아 다니는 황홀한 느낌!! 새삼 봄의 축제에 빠져 행복했던 시간, 마지막까지 열과성을 다해 앵콜곡까지 연주 해주신 부산시립교향악단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오로지 '윈드양상블' 로만 구성된 연주의 매력에 빠졌던 시간내내 행복한 마음이었고 세상에 음악이 있다는 것이 더없이 좋았던 날이었다.

배정순(부산진구 부암3동)

### 브로드웨이 42번가

생생한 라이브 연주로 감상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진수.

열정적인 춤과 노래, 화려한 무대와 의상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극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전 출연진이 펼치는 화려한 탭댄스의 향연은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김태우(서구 암남동)



**방 법** [bsculture@naver.com](mailto: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놀부집 향아리갈비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모집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가로

- 4월 4일과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지는 셰익스피어의 5막 희곡.
- 특정한 작사자나 작곡자가 없이 민중 사이에 구전되어 내려오며 민중들의 사상, 생활, 감정을 담고 있는 노래.
-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 기린, 거북, 용과 함께 사령(四靈) 또는 사서(四瑞)로 불린다.
- 비발디가 작곡한 현악 합주와 바이올린 독주에 의한 협주곡으로, 4계절의 변화를 묘사했다.
- 공연을 앞두고 실제처럼 하는 연습.
- 단행본과 잡지의 특성을 동시에 갖춘 부정기 간행물.
-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이 피며 흔히 울타리용으로 재배한다.
- 2007 청룡영화제, 대한민국영화연기대상, 최고의 영화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고 드라마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MBC 방송연예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탤런트 겸 영화배우.
- 불가의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선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문제.

## 세로

- 추사 김정희와 쌍벽을 이루는 조선 중기의 서예가. 본명은 한호.
- 2008 베를린영화제 경쟁작 진출작으로 화제를 모은 홍상수 감독의 신작.
- 매주 토요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 모래와 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현상. 봄철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준다.
-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질투심 많은 인물로 그려진 이탈리아의 작곡가.
- '닭의 갈비'라는 뜻. 그다지 큰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이르는 말.
- 최고의 실내악단으로 명성을 쌓아온 56년 전통의 이탈리아 정통 실내악단으로, 4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내한공연을 갖는다.
-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파리를 배경으로, 독일 망명객인 주인공의 사랑과 삶을 그린 독일작가 레마르크의 장편소설.
- 나무, 금속, 돌 등의 판에 그림을 새기고 색을 칠한 뒤 종이나 천을 대고 찍어서 만든 그림.

## 지난호 정답

월		히	피			파	고	다
빙		말			로	데	오	
콘	트	라	베	이	스			피
서		야			쿨	로		니
트			송	능			빈	티
		임	순	레		에	디	슨
		경		문		비	크	오
태	업			취	타		루	치
	전	광	석	화			즈	시
곳		장	선	죽	교			토

## 퍼즐 당첨자 명단

### ■ 큰집 식사권

- 김재호(북구 덕천동)
- 박정훈(부산진구 부암3동)
- 윤정미(부산진구 범천4동)
- 신순선(부산진구 초음동)
- 이오순(서구 토성1가)

### ■ 필하모니 식사권

- 김성미(부산진구 연지동)
- 김재분(동래구 수안동)
- 하지영(남구 문현3동)
- 변진희(사상구 모라1동)
- 윤인숙(기장군 기장읍)

### ■ 가마골 소극장 초대권

- 정희경(연제구 연산5동)
- 권미란(해운대구 좌2동)
- 정대필(수영구 수영동)
- 배은정(연제구 연산5동)
- 손준만(남구 우암동)

###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 정인태(부산진구 당감동)
- 조종호(부산진구 전포1동)
- 오정국(부산진구 전포2동)
- 김태진(북구 덕천2동)
- 이중희(수영구 광안2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Sin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628-2592

◆ 연주회 뒷풀이 장소로 더욱 좋습니다.(20~80명)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8년 4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20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혜택

# 해외여행비 3% 할인 이벤트



※ 특별할인 혜택은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로 예약확정 하실 때 적용됩니다.  
☎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더 많은 여행정보를 원하신다면 Hi하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www.hihana.co.kr](http://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 추천 4월 테마별 여행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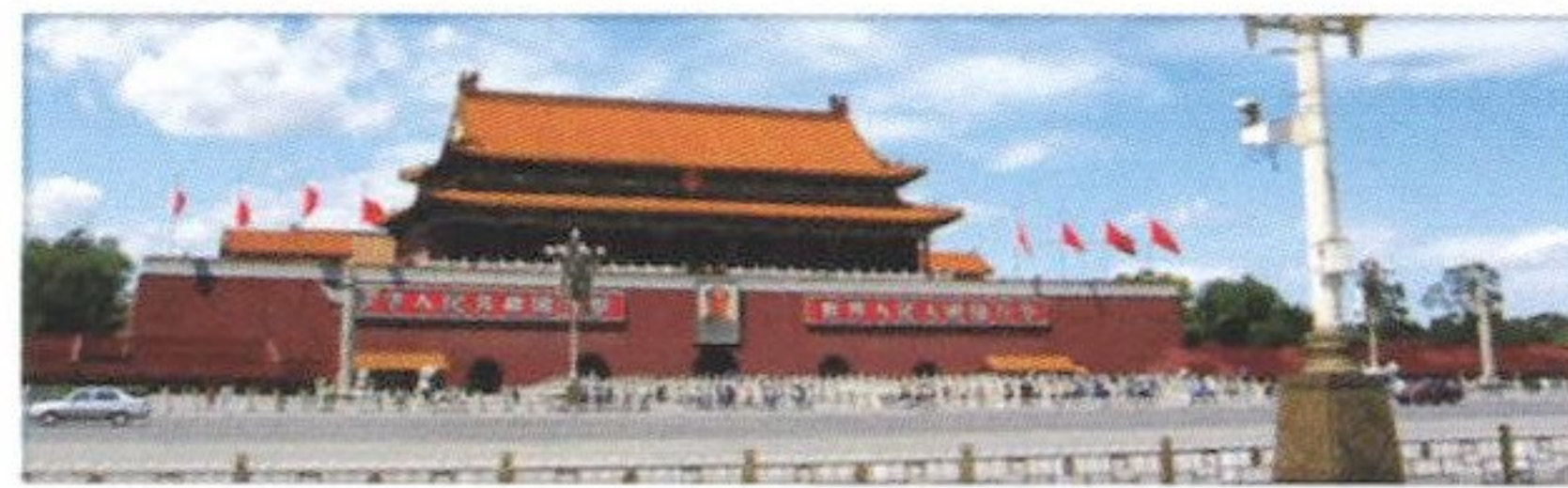
Hi하나에서 자신있게 추천 하는 4월 여행입니다.

### 봄꽃 여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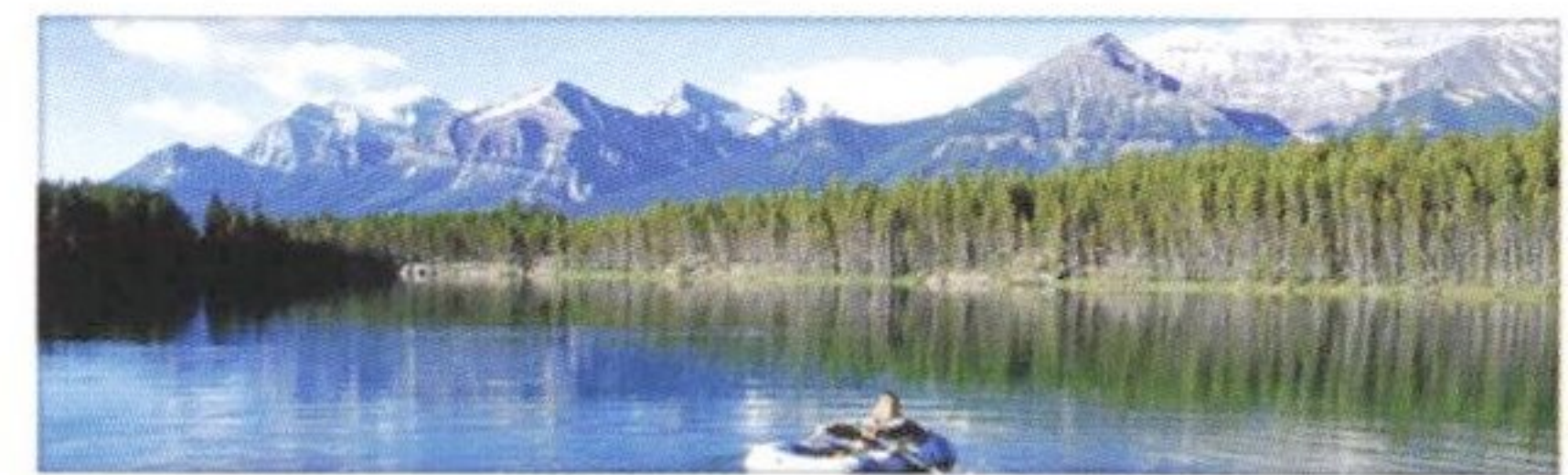
꽃내음 찾아 떠나는 향기로운 여행



♣ 벚꽃花見 ♣  
[3色문화체험] 오사카/교토/나라 4일  
JHP741 749,000원~



♣ 봄의 도시 ♣  
북경/곤명 (석림구향동굴) 5일  
CNP749 1,09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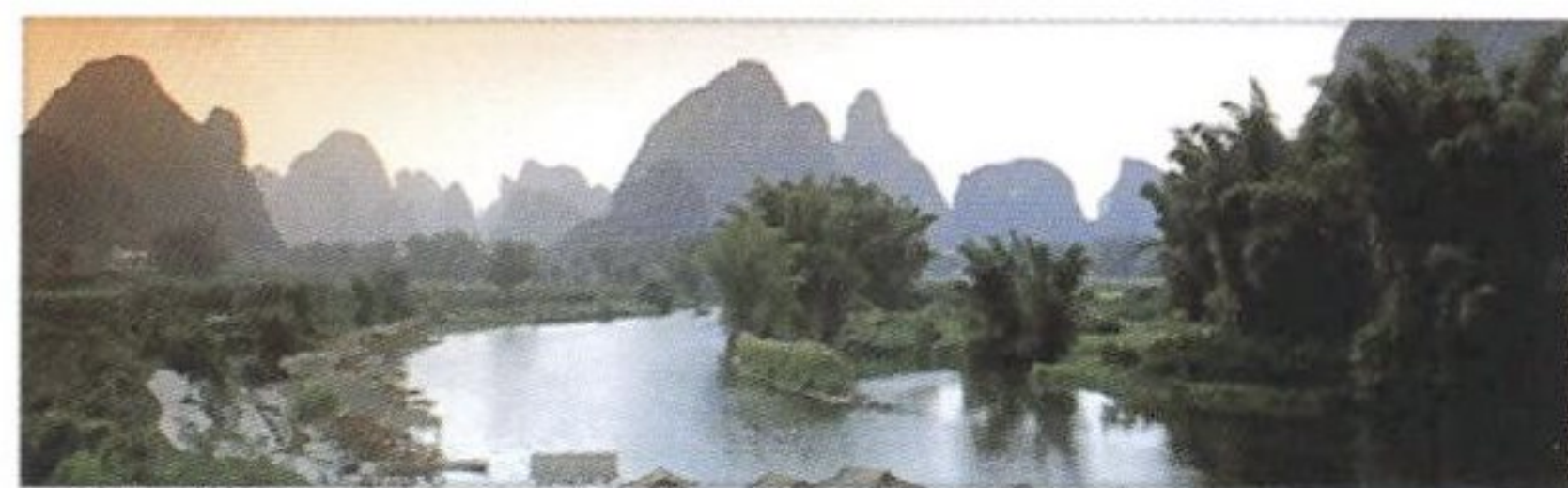
♣ 동화속 풍경 ♣  
캐나다 항공일주 8일 (인천경유)  
HCP721 2,490,000원~

### 중국 3대 절경

중국! 천하제일의 절경여행



광활한 대자연  
항주/황산/요림선경 5일  
CCP743 699,000원~



한폭의 산수화  
서안/계림 4일 (용승온천 포함시 5일)  
CCP762 979,000원~



중국 제일의 자연美  
상해/(항주 or 소주)/장가계 5일  
CCP752 769,000원~

### 이색 여행지

부산에서 편하게 출발하는 색다른 여행의 경험



일본 최고의 설경  
다테야마/알펜루트 4일  
JHP746 1,06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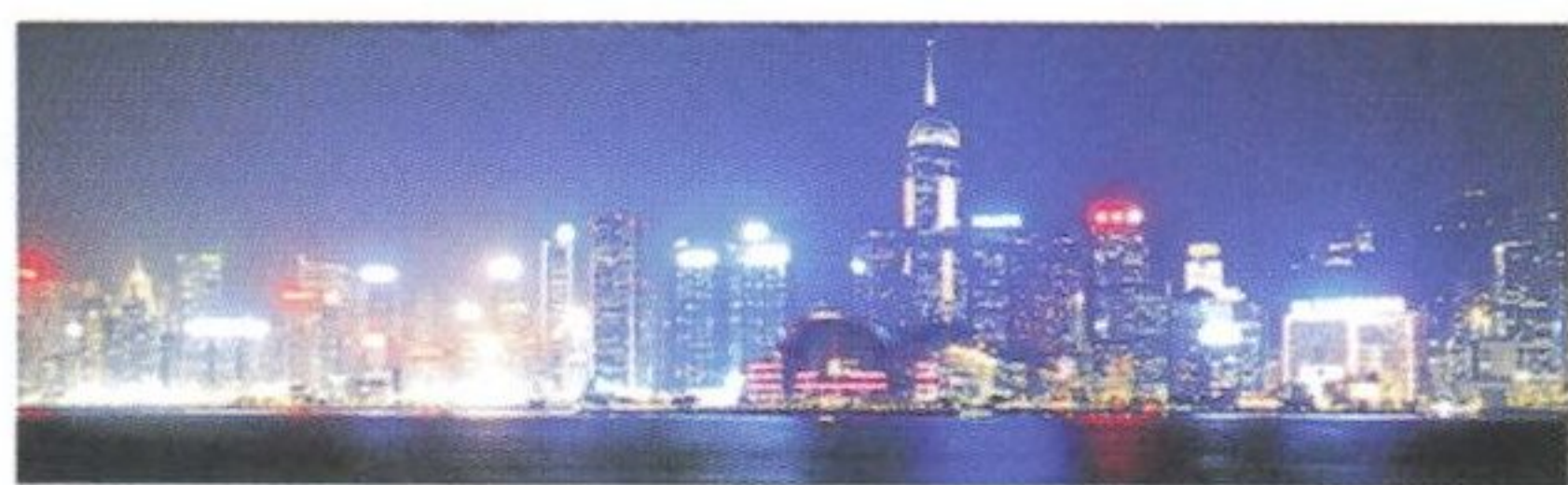
'황금의 땅' 미얀마 문화탐방  
미얀마 일주 6일  
AIP702 1,57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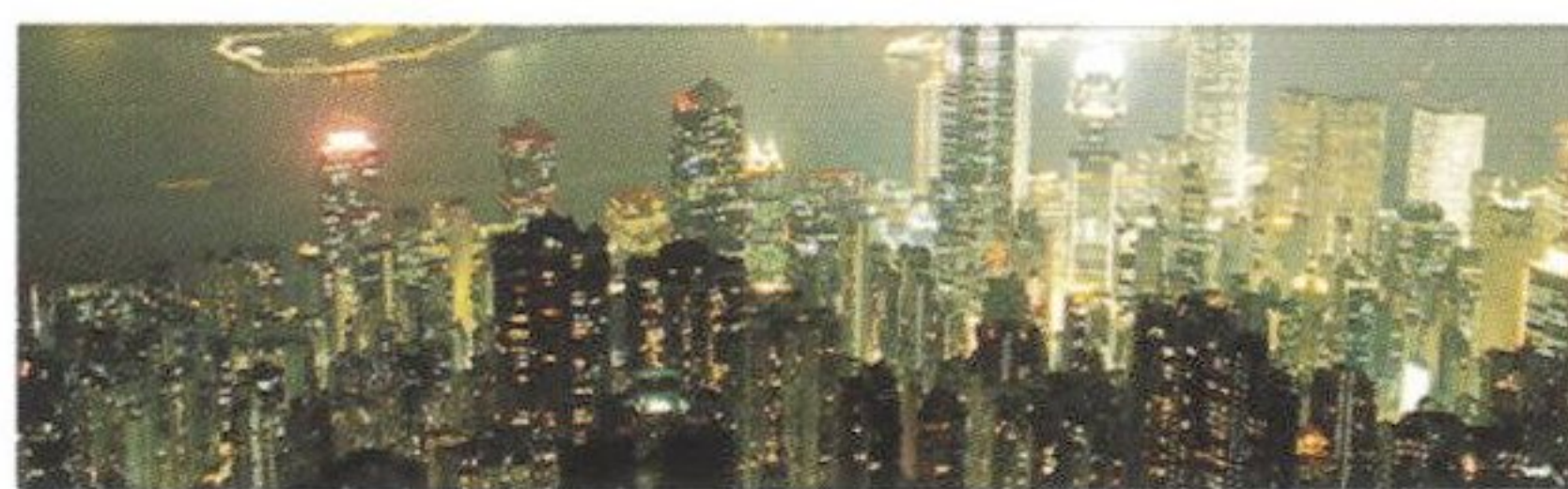
'멜크수도원과 소금광산'  
동유럽 5개국 10일  
EEP751 2,890,000원~

### 홍콩 전세기

황금연휴!! 하나투어 단독 홍콩 전세기 상품



5월 2일 출발  
홍콩 마카오 심천 5일  
AHP704 1,299,000원~



5월 5일 출발  
홍콩 마카오 심천 5일  
AHP704 1,099,000원~



5월 8일 출발  
홍콩 마카오 심천 5일  
AHP704 1,179,000원~



#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4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 ■ 프로그램

**승무**(출연/장래훈, 서현미)-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이매방 선생의 승무는 춤사위에 따라 업을 벗는 과정을 도드리로, 속세와의 완전 결별을 굿거리로, 해탈과 희열을 북가락으로 표현하고 있다.

**태평무**(솔로/이정식, 김동숙·군무/서정숙, 정진희, 강미향, 황설희)-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인 이 춤은 무속 장단에 맞춰 왕과 왕비가 궁중 복식을 입고 추는 우아하고 화려한 민속춤이다.

**성주허튼춤**(춤/김주령, 김진영, 오숙례)-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한 후에 다시 성주를 받아들이는 성주굿에서 무당이 복을 빌어 부르는 노래인 성주풀이에 맞춰 추는 허튼춤.

**탈춤**(춤/이성원, 김병주, 김기원, 허태성, 류권홍·악사/이창규, 장래훈, 김윤호, 박상용, 강모세)-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의 주요 장면을 새롭게 구성한 춤이다.

**진주검무**(춤/윤은하, 이현주)-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인 진주검무는 궁중에서 연희되던 춤으로 정재무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

**부채춤**(솔로/이정인·군무/이현정, 이화성, 오수연, 김미란, 김경미, 안주희)-화려한 무복을 입은 여인들이 꽃, 파도, 원과 직선의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구도를 그려내며 추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춤이다.

· 안무/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 안무자)

※ 공연후 부산시립무용단 제58회 정기공연 **이쁜이** 시집가는 날 '천생연분' 쇼케이스 공연이 있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극단 퓨전 뮤지컬 '미스터옹 vs 미스터옹'

## ■ 작품 설명 및 줄거리



우리의 고전 '옹고집전'을 각색한 부산시립극단의 퓨전 뮤지컬 '미스터옹 vs 미스터옹'. 지난 해 10월 정기공연 작품으로 선보여 많은 호응을 받은 이 작품은 옹진골에 사는 인색한

부자 옹고집이 복제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재미있게 전개된다.

## ■ 등장인물

이혁우(옹고집1, 진짜 옹고집), 이돈희(옹고집2, 가짜 옹고집), 이현주(옹고집 아내), 황창기(황보 박사, 새 생명 연구센터 대표), 정행심(옹고집 모친), 엄준필(강쇠, 옹고집의 머슴), 박찬영(변사또), 유성주(우럭, 연구원), 염지선(여진, 연구원), 김은희(애랑, 여형사 다모), 임해련(행랑어멈), 이은주, 박민철, 손윤혜, 윤유경, 신동훈, 백길성, 이환희, 제정경, 백상희(코러스)

· 연출/손기룡(부산시립극단 수석 연출가)

· 관람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2008년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 놓치지 마세요.



### ▶ 5월 9일(금) 김해 허황옥 유적지, 장군차 시배지

수로왕비 허황옥 신화의 흔적을 따라 떠나는 아름다운 봄빛 여행.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장군차 시배지를 둘러보고 장군차를  
직접 만들어 본다.

-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김해 백운대 도착
- ▷ 10:30 허황후릉 및 구지봉 견학
- ▷ 12:30 중식
- ▷ 13:30 장군차잎 따기 및 장군차 만들기 체험
- ▷ 17:00 김해출발



### ▶ 6월 13일(금) 낙동강 에코센터, 원동 매실따기 체험

인간과 사람이 함께 사는 낙동강 하구를 만들기 위해 건립된 낙동강 에코센터와 낙동강변에  
위치한 원동의 명물 매실을 직접 따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원동 순매원 도착, 매실따기 체험
- ▷ 11: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3:00 순매원 출발
- ▷ 14:00 낙동강 에코 센터 탐방
- ▷ 16:00 다대포 아미산 전망대 방문
- ▷ 17:30 부산문화회관 도착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4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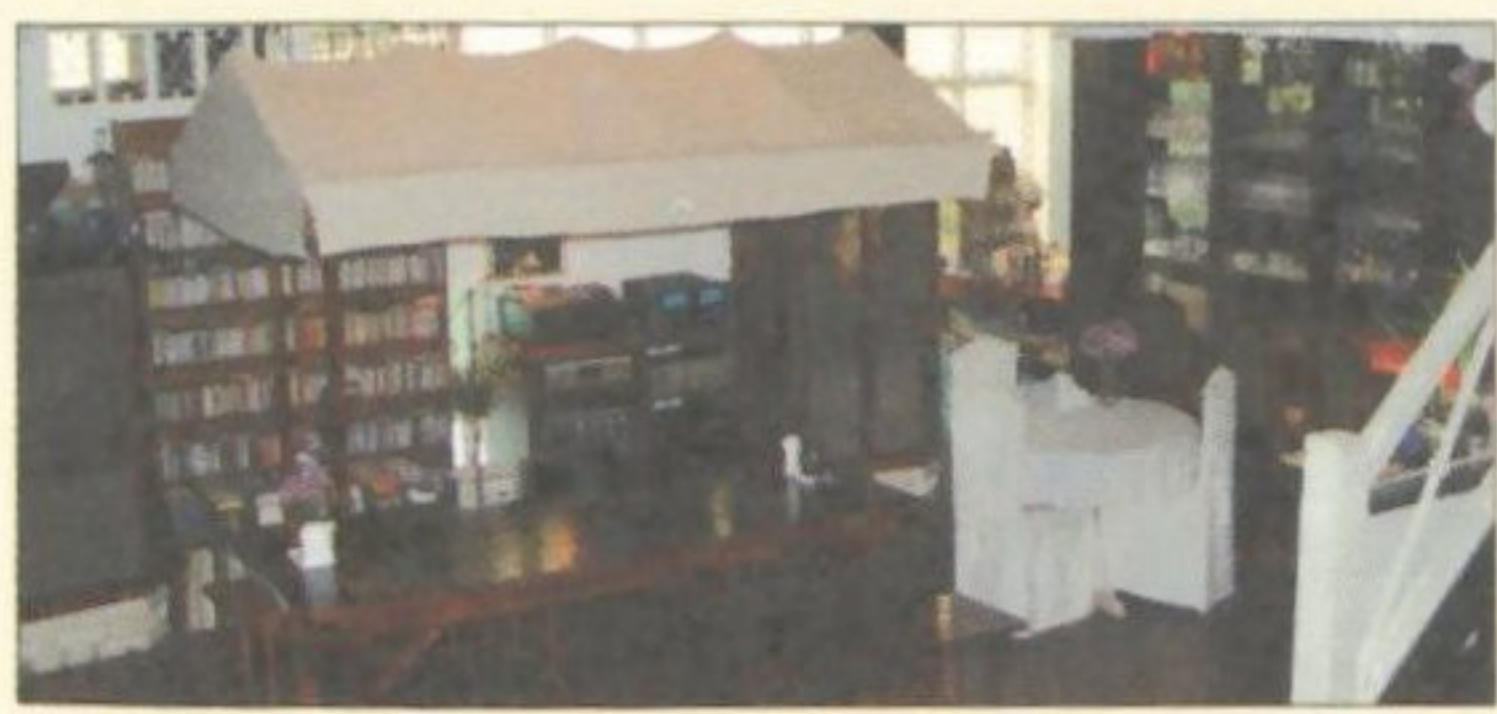


주 |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락시터** 10% 할인



▶ 날짜 : 2008. 3. 21(금)~4. 13(일)  
▶ 시간 : 평 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08. 4. 1(화)~6. 30(월)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신비로운 해저세계-  
**부산아쿠아리움**

10% 할인

- 날짜 : 2007년 12월 1일 ~ 2008년 11월 30일
- 시간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8시  
(마지막 입장 오후 7시)  
주말·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마지막 입장 오후 9시)
- 타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
- 쿠폰제시시 1매 4인까지 10% 할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

발송유효기간  
2004. 4. 1~

---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

발송유효기간  
2004. 4. 1~

---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공연의 준비에서 감동까지  
그 시작은 박스어드컴과 함께...  
☎ 633-2655

문화 · 예술 공연의 홍보 도우미  
**지하철 포스터 광고**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벨칸토 창법의 정제된 성악가이고  
다른 남자는 포크 기타에 록의 열정을 더한 가수입니다.

바리톤 안지환과 가수 안치환.  
이 두 남자가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슈베르트의 '봄꿈' 과 바버의 '데이지 꽃'  
안치환의 히트곡 '내가 만일' 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파바로티와 영국 팝가수 스팅의 듀엣으로 유명한 '생명의 양식' 과  
가수 안치환이 바리톤 안지환에게 헌정한 '풍경 달다' 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그리움, 삶과 자유에 관한 단상들이  
음악의 경계를 넘어 봄날, 서성이는 당신을 찾아갑니다.

삶과 자유를 향한 에너지  
가수 안치환

# 두 남자의 음악이야기

사랑과 그리움의 연가  
바리톤 안지환

2008년 4월 11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특별출연 | 소프라노 박현정  
| 피아노 | 김하림

주최 | 그랜드오페라단 부산 CBS | 협찬 | 상지 E & A /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VIP석 70,000원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공연안내·예매 | 그랜드오페라단 (051) 610-1004 www.grandopera.or.kr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 부산은행 전지점



판권지 없음



부산시립합창단 7080 가요합창음악회 네 번째 이야기

이정선과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 아직 못 다한 우리들의 노래



2008년 5월 7일(수)~8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해설/김강규  
특별출연/이정선(가수)

2007세 번째 이야기 회상

- ▶ 꽃동네 새동네
- ▶ 산골 소년의 사랑이야기
- ▶ 행복한 사람
- ▶ 광야에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을

- ▶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 ▶ 사랑이야
- ▶ 그대 있음에
- ▶ 가나다라

어버이 날에...

- ▶ 부모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김소월 시)
- ▶ 아빠의 청춘

이정선과 함께...

•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CBS

•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합창단

•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link<sup>h</sup>

www.tickelink.co.kr  
콜센터 : 1588-7890

• 입장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625-8130) www.bsculture.busan.kr